아슬레마 튀니지!!

CONTENTS

1부. 북아프리카의 빛나는 진주, 튀니지

Part I. 파견국 개황
튀니지는 어떤 나라일까?

1. 튀니지, 여긴 어디? 6
2. 인샬라! 아하나 무슬림 14

2부. '함께'라는 기쁨, 튀니지 생활 백과사전

Part I. 튀니지 첫발 딛기

1. 요령 있게 짐 싸기 20
2. 편의시설 습득하기 28
3. 알뜰살뜰 생활비 관리하기 42
4. 마음의 안식처 - 집 임대하기 46
5. 감 잡았어! 생활 물가 51

Part II. 튀니지 파헤치기

1. 안전이 최고야 ! 54
2. 여가시간 백배 활용하기 60
3.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71
4. 나도 이젠 요리사! 79
5. 알아두면 편리한 TIP! 84

3부. 같이 웃는 즐거운 내일, 튀니지 즐기기

Part I . 튀니지 둘러보기

1. 여러 문화의 보고 94
2. 파란 하늘 푸른 바다 102

Part II. 단원 활동 정보

1. 단원 파견 현황 108
2. 단원 활동 미리보기 110

제작진 소개 112



제 1부

나눔 하나

북아프리카의
빛나는 진주, 튀니지



PART I. 파견국 개황 : 튀니지는 어떤 나라일까?



PART I. 파견국 개황

튀니지는 어떤 나라일까?

1. 튀니지, 여긴 어디?

가. 튀니지 개관

1) 튀니지는?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작은 나라 튀니지. 서쪽으로는 알제리, 남동쪽은 리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북쪽과 동쪽은 지중해가 해안선을 이루고 있다. 주변 국가로는 같은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연합국[1]인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모리타니' 등이 있다. 지중해 건너편으로는 '이탈리아, 프랑스'와 근접해 있다.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튀니지는 일찍부터 상업과 해상무역이 발달했다. 중동과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관문이자 상업의 거점 역할을 했으며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전파에 있어서도 진원지와 같았다. 한국과는 1969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상주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호적이며 긴밀한 국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진출 기업으로는 LG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유라코퍼레이션이 있다. 봉사단원을 포함하여 약 180여명의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국토의 총 면적은 163.610㎢ 이며 총 인구수는 1153만명(2017년 세계은행 자료 기준)으로 천만이 조금 넘는 인구이다.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3/4 크기이며 인구는 남한의 1/5에 불과하다. 인구의 평균 연령은 30세(남성 29.6세 여성 30.4세)이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7.5%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사회로 간주되는 65세 이상 인구비율 14%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기대 수명이 75 세까지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의 비율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종으로 분류해 보면 아랍인이 98%이며 유럽인과 소수 베르베르인[2]이 각 1%씩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종교의 신도 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인종	비율(%)	종교
아랍인	98%	이슬람(회교)
이주 유럽인	1%	가톨릭(그리스도교)
베르베르인	1%	유대교

튀니지는 북아프리카 이슬람 전파의 시발점이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을 국교로 채택한 이슬람 국가이지만 이슬람 근본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신도 대부분이 이슬람 분파 중 온건한 수니파(Sunni)[3]이다. 독립 이후 지속적인 개방정책으로 이슬람 문화와 현대사회가 잘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이슬람 신자이지만 외국인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가톨릭, 유대교' 등의 활동이 큰 분쟁 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교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튀니지 내 대부분의 유대교 신자들은 베르베르인[4]과 일부 유대인이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주해 온 유럽인들과,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흑인들이 대다수이다.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하다. 봄은 3월에서 5월까지이며, 6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긴 여름이 지속된다. 이후 짧은 가을이 지나고 12월 중순에서 2월말, 3월초 까지는 겨울로 우기에 해당한다. 평균기온은 여름 29.3℃, 겨울 11.4℃이다. 한여름은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연안이나 사하라 사막에 거주하고 있던 고유 인종. 이슬람의 가장 큰 종파(85%)이자 정통파로, 무슬림 공동체를 추종하며 이슬람 경전

1) 1989년 2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모리타니 5개국 간의 연합으로 관세동맹, 공동시장 형성 등을 통한 자유무역 및 서비스 자유화를 목표로 창설되었다.

2)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연안이나 사하라 사막에 거주하고 있던 고유 인종.

3) 이슬람의 가장 큰 종파(85%)이자 정통파로, 무슬림 공동체를 추종하며 이슬람 경전이자 무함마드의 삶을 닮은 순나(Sunnah) 를 따름.

4) 베르베르인들은 일찍이 이슬람에 흡수되었으나, 튀니지 남동부 제르바(Djerba)와 따따윈(Tataouine) 지역에 군집생활을 하면서 유대교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유대교에 있어서 튀니지는 모로코와 더불어 북아프리카 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국가이다.

이자 무함마드의 삶을 닮은 순나(Sunnah) 를 따름.

베르베르인들은 일찍이 이슬람에 흡수되었으나, 튀니지 남동부 제르바(Djerba)와 따따윈(Tataouine) 지역에 군집생활을 하면서 유대교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유대교에 있어서 튀니지는 모로코와 더불어 북아프리카 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국가이다.

최고 50℃에 육박하는 매우 더운 날씨이다. 일부 북부 산간 지역 해발 1,000m 이상의 지역에서는 겨울에 간혹 눈이 오기도 한다. 대부분의 생활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북부의 지역은 여름에는 고온건조하며 겨울에는 우기로 대체적으로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양 상을 띠고 있다. 남부사막 지역은 사막성 기후의 전형을 나타내고 있다. 튀니지는 지중해성 기후로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어 각종 야채와 과일, 작물 등의 농산물이 풍부하다. 또한 북부와 동부지역의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해산물 역시 많은 편이다. 주식은 빵으로 샐러드와 소스를 곁들여 먹는다. 피자, 스파게티, 샌드위치 등 서구식 식습관이 보편화되어 있다.

나. 언어와 교육제도

튀니지는 일상생활 의사소통에 있어서 튀니지 아랍어(Tunisian Arabic)를 모국어로 사용한다. 이것은 정통 아랍어(Standard Arabic, Fusa)를 기반에 두고 튀니지인의 억양, 발음, 그리고 조금씩 변형된 표현 등이 토착화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일종의 지방어 (Amme)[5]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아랍국가도 마찬가지이다. 튀니지 역시 문어(文語)에서는 정통아랍어를 사용하지만 구어(口語)에는 튀니지 아랍어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프랑스어가 공용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곳 사람들 대부분이 프랑스어와 아랍어를 혼용해서 많이 사용한다. 튀니지에서는 두 가지 언어를 같이 습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학교 입학 전 가정에서 튀니지 아랍어를 사용하던 아동들은 6세 때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이슬람 성서인 '코란(Koran)'을 근간으로 하여 정통 아랍어 필기법을 습득한다. 이후 8세부터 정규교육과정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이후 12세가 되면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을 선택적으로 학습한다.

튀니지는 높은 교육열을 가진 나라로 대학교육을 포함한 전 과정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1년부터 만 6세부터 16세까지의 기초 필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세계적으로 견주어봤을 때도 개발도상국이라고 하기에는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5) 정통 아랍어를 푯사(Fusa)라 하며 지방 아랍어를 암메아(Amme)로 한다. 튀니지 아랍어는 일종의 지방어로 튀니지 사람들은 이를 데르자(Derja)로 칭한다.

있다. 전체 국가 총 생산(GDP)의 6%를 교육부분에 사용한다. 2008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튀니지는 교육 시스템의 질 부분에서 17위, 초등교육 부분에서 2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교육 인프라를 잘 형성하고 있다.

먼저 등록금의 경우 모든 공립학교는 전액 무상이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적지 않은 수 업료를 지불해야 한다. 최근 교육을 위해 시골에서 대도시로의 이동과 대도시를 넘어 유럽으로 유학을 가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과외나 학원 등의 사교육 열풍과 함께 인터넷이나 기타 통신 매체를 이용한 교육이 점점 늘고 있다. 그리고 영어와 컴퓨터 관련 교육 열풍이 점차 늘고 있는 점은 마치 우리나라를 연상케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튀니지는 강력한 유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기말 평가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유급된다. 유급 시, 초등학교 4학년 과정부터 시작이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다. 튀니지의 과거와 오늘

1) 고대 베르베르인에서 튀니지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이 곳 튀니지의 태초 인류는 BC 4,000년경 나일 강 유역에서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 던 고대 베르베르(Berber)인들이었다. 사실 이들은 어떠한 문명사회를 이룩하지는 못했으며 국가적인 요소를 구축하지도 못하였다.

이후 기원전 9세기 티레(Tyre, 현재 레바논) 지역의 페니키아인들이 이주하면서 카르타고(Carthage)라는 도시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이주민의 대부분은 해상무역을 하던 상인들이다. 카르타고는 기원전 6세기경 지중해 연안을 아우르는 왕성한 무역국으로 전성기를 누린다. 이후 카르타고는 지중해 연안 상권을 두고 주변 국가와의 수차례 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 중 가장 유명한 전쟁이 바로 카르타고의 몰락과 로마의 번영을 가지고 오는 포에니전쟁[6]이다.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에서 패한 카르타고는 기원전 149년 로마에 예속되고 만다.

그 후 로마의 번영과 함께 다시 한 번 북아프리카에서 최대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5세기 반달족(Vandal)과 6세기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 다시 서기 647년 아랍민족의 침입을 받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지배민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내 이슬람의 전파로 이어졌다. 튀니지를 점령한 아랍민족은 튀니지 중부 카이로우안(Kairouan)을 국가의 수도로 지정했다. 이후 튀니지는 모든 북아프리카를 이슬람으로 연결하는 종교적 중심지와 상업을 이어주는 경제적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 이후 900년에 가까이 안정된 시기를 누리지만 튀니지 외침의 역사는 이것으

6) 지중해 세계 패권을 두고 로마와 카르타고와의 3차에 걸친 전쟁으로 로마-카르타고-로마 순으로 승전.

로 끝이 아니었다.
1534년 오늘날 스페인의 침입이 있었다. 40여년 후인 1580년 거대한 터키 제국의 왕조였던 오스만튀르크 제국(Ottoman Empire)의 침입을 받는다. 이후 오스만 튀르크 제국으로부터 약 300여 년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때 튀니지는 예속국가가 아니라 베이(Bey)라는 지방 군주의 형태로 운영된다. 이때 후세인(Hussein) 왕조를 형성해 사 실적인 독립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하지만 혹독한 기근과 걷잡을 수 없는 흑사병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튀니지의 생활, 경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의 해결과 안정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1869년 프랑스의 침입을 받는다. 결국 1881년 '바르도 조약[7]'을 체결함으로써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된다. 프랑스의 통치는 1956년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시기까지 이어졌다. 더불어 튀니지의 길고 길었던 외세 침략과 통치의 역사가 끝난다. 1957년 7월 25일 초대 대통령인 하비브 부르기바(Habib Bourguiba) 대통령 취임과 함께 튀니지는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성립된다.

2) 독립 후 정치, 사회

부르기바 대통령은 프랑스 지배시절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며 궁극적인 독립을 이끌어낸 장본인이었다. 부르기바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다른 아랍국가와는 완연히 다른 획기적인 개혁 정책을 펴면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였다.
프랑스 시민법과 이슬람 율법을 혼합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억제하였다. 또한 양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기존에 존중받지 못하던 여성인권향상을 가져왔다. 예를 들면, 이슬람 여성들의 상징인 히잡(Hijab)[8]의 공공장소의 착용을 지양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제도하에 있던 여러 제약의 폐지와 동시에 가족법 내 이혼법을 개편했다. 이를 통해 남성에 의한 일방적인 이혼이 가능 했던 것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 등이 사라지게 되었다. 튀니지는 아랍국가 중 일부다처제가 아닌 최초의 국가로 알려져 있다.
튀니지는 입헌 공화국으로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그와 동일한 정치체계를 갖추고 있 다.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과 국회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상하 양원제로 운영되는 국회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의원의 20%는 여성으로 다른 주변 아랍 국가들에 비해 여성 정치 참여율이 월등하다.
한 가지 주목하여야 할 점은 독립을 이룩한지 5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7) 1881년 5월 12일 프랑스와 튀니지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튀니지는 프랑스의 보호령 국가가 됨.
8) 이슬람을 믿는 여성들이 머리와 상반신을 가리기 위해 쓰는 일종의 두건으로, 이슬람 성전에 13세 이상이 되면 착용하도록 되어있음.

불구하고, 그 동안 겨우 2명의 대통령만이 장기 집권을 하였던 점이다. 정당역시 민주헌정 연합(RCD)의 일당 독주체제로 국회가 운영되어 왔었다. 기타 야당들의 국회참여가 허용은 되었으나 사실상 그 역할은 미미하였다.
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벤 알리(Ben Ali) 전 대통령은 1987년 11월 7일 튀니지 헌법 57조에 의거하여 당시 종신 대통령이었던 부르기바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로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진단에 의한 '의료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집권 이후 종신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5년 임기와 3선 제한 등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2002년 헌법 조항을 개정하고 2009년 대선에 출마하여 5회 연임에 성공하며 강력한 경찰력을 기반으로 하여 장기집권체제를 유지하였다.
집권 기간 동안 적극적인 경제 개방을 이루며 이를 근간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 장을 이루었다. 또 여성의 사회진출 장려와 사회복지적인 측면도 향상시키면서 민심을 크게 잃지 않았다. 의회에 복수 정당의 진출, 복수 대통령 후보 출마 허용 등 순차적인 민주적 단원주의를 도입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들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런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은 장기집권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는 했지만 23년에 가까운 집권동안 이루어진 정치적인 부패는 많은 사회적 문 제를 야기했으며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치솟게 되었다. 높은 실업률과 기초 물가 상승 등의 경제적 문제 역시 결부되면서 급기야 정권퇴진 운동으로 이어졌다. 결국 2011년 1월 재스민(Jasmin) 혁명으로 벤 알리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한다. 혁명 이후 혼란 종식을 위한 '국민 4자 대화기구'의 노력으로 2014년 1월 통합과도 내각이 출범, 신헌법을 채택(2월), 총선(10월), 및 대선(12월) 실시 후, 2015년 2월, 에셉시 대통령의 정권이 출범하였다. 2019년 신헌법채택 이후 2번째 총선(10월)과 대선(11월)을 실시 할 예정이다.

3) 경제

튀니지는 2000년 이후 2010년간 5%에 달하는 높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이는 사회적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세력의 활동을 차단하고 온건한 외교 노선과 적극적인 경제 개방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지중해 연안 국가(2008년)인 것만 봐도 경제 개방에 대한 노선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국제 무역량을 비교하여 보면 인접 유럽국가인 프랑스와 이태리와의 교역량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수출량(%)	국가	수입량(%)
1	프랑스	29.6	프랑스	20.1
2	이탈리아	21	이탈리아	16.4
3	독일	8.8	독일	8.8
4	리비아	5.8	중국	5
5	스페인	5	스페인	4.5
6	영국	4.8	영국	4
	총 수출액 : $161억		총 수입액 : $200억	

2009년 기준

2017년 국가 구매력 평가지수 (PPP)[9]에서 1인당 11,634달러로 국가간 비교 순위 97위에 올라있다. 주요 산업으로는 농업, 광업, 제조업, 유류 산업, 관광산업 등이 있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산업 규모를 알아보면 1차 산업이 10.6%, 2차 산업인 생산업이 34.6%,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54.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생산기반 없이 형성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정치적·사회적 요소 등에 크게 휘둘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많은 부분이 관광과 관련되어 있어 더욱 그 위험성이 커 보인다.

산업 구분	GDP 비율(%)	종사자수(%)
1차 산업	10.6%	18.3%
2차 산업	34.6%	31.9%
3차 산업	54.8%	49.8%

이러한 구조는 최근 몇 년간 세계적 경제 불황의 여파와 함께 튀니지의 최대 무역 시장인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량 감소와 함께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면서 취약점을 드러냈다. 이와 더불어 2011년 이루어진 재스민 혁명과 뒤따른 정치, 사회적 불안은 관광사업의 하락을 가지고 온 상황이다. 지속되는 시위와 파업은 실업의 증가와 경제활동의 정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8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하여 이런 상황을 좀 더 알아보기로 하자. 작년 한 해 물가 상승률은 7.3%, 실 경제 성장률은 2.5%[1]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이런 물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점점 높아지는 실업률은 많은 경제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튀니지 정부 발표에 따른 노동인구는 383만 명으로 공식 실업률은 15.4% 수준이다. 하지만 체감 실업률은 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실업 인구의 상당수가 청년층에 밀집되어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과제들로는 산업시설 전반의 마련과 외국 투자 자본의 증대와 자유화이다. 또한 무역 손실액의 절감과 남서부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기반의 확충 등으로 볼 수 있다.

9) 한 나라의 GDP를 물가 수준과 비교한 지수로, 국가 간 가격 차이를 감안한 경제지표

1 EIU 2019년 1분기 보고서 기준

4) 화폐

튀니지 기본 화폐단위는 디나르(Dinar)라고 부르며 1960년에 최초 발행되었다. 국제적 표기 방식은 TND(Tunise Dinar)이다. 현지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랑스어식으로 DT 라고 표기한다. 디나르의 하위 화폐단위로는 밀림(Millime)이 있으며 함께 통용된다. 1디나르는 1,000밀림(100밀림x10)이다. 1디나르는 한국 원화로 통화변환하면 약400원 정도이다(2019년 5월 기준 1TND = 397KRW).

화폐는 먼저 지폐의 경우 5, 10, 20, 50 디나르의 단위가 유통되고 있으며, 동전의 경우는 5, 10, 20, 50, 100, 500 밀림과 1디나르와 5디나르 등 총 8가지 단위가 있다. 한국에 견주어 볼 때 화폐 유동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화폐 단위와 큰 금액의 화폐를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다.



5디나르 지폐 전면
- 최초발행년도 : 1993
- 도안인물 : 한니발(Hannibal)



10디나르 지폐 전면(구권)
- 최초발행년도 : 1994
- 도안인물 : 아부 카셈 에세비



- 20디나르 지폐 전면
- 최초발행년도 : 1992
- 도안인물 : 케이레딘 에툰지 (Kheireddine Et-Tounsi)



50디나르 지폐 전면
- 최초발행년도 : 2009
- 도안인물 : 이븐 라치크 알 이루아니 (Ibn El Rachiq Kairouani)



밀림의 전면 (좌측부터 5, 10, 20, 50, 100 밀림 순)



디나르의 전면과 후면 (좌측부터 1/2, 1, 5 디나르 순)

2. 인샬라! 아하나 무슬림

튀니지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민의 98%가 이슬람 신자로 완전한 이슬람국가이다. 사람들 역시 항상 '우리는 이슬람 신자'라는 의미의 "아하나 무슬림"을 말하며 이를 자랑스러워한다. 따라서 튀니지의 이해를 위해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슬람에 대한 것이다. 이슬람의 기본이 되는 여섯 가지의 믿음을 칭하는 이만(Iman)과 행동의 기본이 되는 다섯 가지의 행동지침을 부르는 아르칸(Arkan)을 알아보면서 그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기로 하자.

가. 이슬람 개요

이슬람은 가톨릭(그리스도교), 불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로, 이슬람 신자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자 유일신인 알라의 가르침을 받들며 생활한다. 이런 알라의 가르침을 계시 한 사람이 마지막 사도인 무함마드(Muhammad)이다. 그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 오늘날의 코란(Koran)[10]이다.

이슬람의 의미는 신에 대한 복종, 평화를 의미한다. 이를 믿고 복종하는 신자를 무슬림이라 부른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이며 절대 비교 불가한 것이다. 신을 숭배하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10) '읽다' 또는 '읽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로 사도인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들을 것을 정리한 이슬람 경전으로 총 6,342절, 11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의 성전인 코란 한 구절을 인용해 알아보도록 하자.

'동도 서도 알라의 것, 어느 쪽을 향해도 알라의 얼굴은 거기에 계신다. 골고루 존재하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코란 2:11).'

이는 모든 삶의 중심이 알라라는 유일신과 함께함을, 모든 행동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자주하는 언행 중에서도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샬라(Inch'Alla)' 이다. 인샬라는 '알라신이 뜻하면' 또는 '알라신이 원하면'의 의미다. 모든 약속이나 행동에 이 인샬라를 말함으로써 모든 행동이 신의 영역에서 행해짐을 의미한다.

나. 믿음

이슬람의 믿음은 여섯 가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절대 유일한 하나님인 알라, 둘째, 신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를 의미하는 천사, 셋째, 궁극적으로 코란을 의미하는 이슬람 성전, 넷째, 신의 선택을 받은 전령인 예언자 또는 사도[11], 다섯째, 후세에 대한 마지막 심판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에 의해 모든 게 정해졌다는 정명. 이렇게 여섯 가지를 이만(Iman)[12]이라고 하는데 이 모두를 믿어야만 진정한 무슬림이 될 수 있다.

다. 행동

이와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신앙고백, 예배, 봉헌, 단식, 성지순례의 다섯가지 의무적인 행동지침에 따른 생활을 해 나간다.

첫째, 샤하다(Shahadah)로 불리는 신앙고백은 이만의 첫 번째 그리고 네 번째의 믿 음을 입으로 암송하는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알라 이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가 알라의 마지막 사자임을 증언합니다.' 무슬림은 어릴 때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증언을 고백하게 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이 문구를 암송하면 무슬림이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둘째, 예배를 뜻하는 살랏(Salat)이다. 이는 일정한 시각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행하는 예배를 말한다. 예배는 하루에 다섯 번 일출(Fajr)·정오(Dhuhr)·하오(Asr)·일몰(Maghrib)·심야(Isha'a)에 하는 것으로 라까아(Raka'ah)[13]라는 의식의 횟수가 각각

11) 아담(Adam), 노아(Noah), 아브라함(Abraham), 모세(Moses), 예수(Jesus), 무함마드(Muhammad).

12) 6개의 항목이지만 세부 77개의 항목으로 세분화 됨. 사람을 칭하는 경우 이슬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의미.

13) 기도에 행하는 의식의 순서를 의미하며 각 기도시 정해진 횟수를 반복한다. 2회(일출), 4회(정오), 4회(하오), 3회(일몰), 4회(심야)

정해져있다. 예배의 방향은 메카(Mecca)[14]를 향하여 드린다. 금요일 정오에는 이슬람 예배당인 모스크(Mosque)에서 단체예배를 행한다.

셋째, 봉헌, 자선을 의미하는 자캇(Zakat)이다. 모든 신자들이 해야하는 의무중의 하나이다. 신자들끼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나누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봉헌의 액수는 소득의 2.5%를 기준으로 하며 노예와 같은 극빈층과 선교사를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 돈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선행이나 이웃에 대한 봉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 다.

넷째, 단식인 샤움(Sawm)이다. 코란에 명시된 의식으로 회개와 수행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나 라마단(Ramadan)[15] 기간에는 의무사항이며 새벽에서 황혼까지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음식은 물론 물도 마실 수 없다. 흡연, 성교 역시 삼가여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 신앙상의 죄업으로 간주된다.

단식은 신을 가까이 찾고 신에게 감사하며 신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과거의 죄를 속죄하고 빈곤한 이웃들을 상기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은 성지순례인 하즈(Hajj)이다. 이는 이슬람력 12월(Dhr al-Hijjah)에 아랍세계의 기원이 되었던 거룩한 도시 메카(Mecca)를 순례하는 것이다. 능력이 없는 자는 하즈를 못해도 죄가 되지 않지만 모든 무슬림은 가능한 한 평생에 한 번은 할 의무가 있 다. 순례는 하얀색 전통복장을 착용하고 메카에서 10km 정도의 거리로 행해진다. 이는 그들 사이에서 커다란 영광이며 이를 통해 신에 대한 신앙심을 표현한다고 여긴 순례를 마친 자를 하지(Haji)라고 부르며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다.

튀니지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다른 이슬람 국가가 그러하듯 무슬림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형성된 비슷한 생활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신앙으로서의 종교를 넘어선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코란을 바탕으로 하디스(Hadith)라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생활에 접목시키고 있기에 가능하다.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삶을 토대로 기록된 글로써 그의 언행에서 행동, 성격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법률에 앞서 행동을 규율하는 도덕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생활 전반에 있어서 신앙에 따른 자율적인 규제를 가져오는 효과까지 더하고 있다. 이슬람 사회에서 부르는 하람(Haram)[16]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

14)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도시로 이슬람의 중심이자 최대 성지

15) 이슬람력의 9월을 의미하며 양력에 비교해 보면 매년 11일씩 앞당겨진다.

16) 원래는 신성한 영역을 의미하는 이와 동시에 신성함을 유기하기 위해 금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생활적인 측면에 선 금기시 되는 항목들을 칭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음주, 도박, 우상숭배, 점술 등의 금지와 돼지고기를 취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다.

KOICA WORLD FRIENDS KOREA



제2부



나눔 둘
'함께'라는 기쁨,
튀니지 생활 백과사전

PART I. 튀니지 첫발 딛기
PART II. 튀니지 파헤치기



PART I. 튀니지 첫발 딛기

튀니지 첫발 딛기

1. 요령 있게 짐 싸기

가. 고민된다! 고민돼!

파견에 앞서 제일 기본이 되는 과정은 바로 짐을 챙기는 일이다. 하지만 막상 짐을 챙기다보면 '어떤 물품들을 가지고 가야할지, 또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지' 등의 고민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튀니지에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꼭 준비해가야 할 물건과 현지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한 물건을 정리해보았다. 잘 챙겨온 짐은 2년간의 활동기간에 있어서 중요한 밑바탕이 되니 눈 크게 뜨고 하나하나 확인해보자.

나. 있을 때 챙겨! 후회하지 말고

1) 내 사랑 밥통! 너 없이는 못 살아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물품은 바로 소형 전자제품들이다. 튀니지에도 다국적 기업의 제품이 많지만 한국에서의 구매를 추천한다. 현지에서 구매할 경우 언어와 설치된 운영 체제 등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가격 역시 한국이 많이 저렴하다. 또 전기 밥솥이나 DSLR카메라 같은 경우는 튀니지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이다. 필요한 사람 은 꼭 가지고 와야 한다. 2년간의 튀니지 생활에 꼭 필요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품목을 알아보도록 하자.

A. 현지구매 불가한 품목

많은 가전·전자 제품이 유통되고 있지만 아래의 두 품목은 아직 구매할 수 없다.

품목	필요도	참고사항
전기밥솥	★★★★★	- 3인용 소형 밥솥이 유용함. - 현지에서 압력밥솥은 구입 가능하나 모두 크기가 큼.

B. 현지에서 구매 가능하지만 한국 구매 추천 제품

거의 모든 단원들이 가지고 오는 제품들이다. 이제는 삶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것들로 반드시 챙겨야할 품목들이다.

품목	필요도	참고사항
노트북	★★★★★	- 한국 동일상품에 비해 가격이 비쌈(약 20%). - 운영체제와 키보드의 언어 변경이 필요함.
카메라	★★★★★	- 신형 모델이 없으며, 가격이 비쌈(약 30%). - DSLR 카메라와 주변기기는 거의 없음.
외장메모리(HDD, USB)	★★★★★	- 대부분 구형 모델이며 가격이 비쌈. - 하드에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을 담아오면 좋음.

C. 현지 구매가 용이한 제품

수화물의 무게와 가격이나 성능에 비교하여 한국에서 가지고 오기 보다는 튀니지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제품들이다. 단원들이 많이 챙겨오는 것들 중에는 헤어드라이기, 헤어 아이론(일명 고데기)과 다리미 등이 있다. 몇몇의 경우 다용도 믹서를 가지고 오지만 이것 역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❶ 튀니지 가정의 콘센트 ❷ 시중에서 판매되는 멀티 탭

Tip

튀니지의 전압은 220V로 한국과 동일하며, 전력 역시 안정적이어서 별다른 연결없이 전원을 연결해 사용해도 된다.

전원 연결용 멀티 탭도 다양하며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멀티 탭 앞쪽에 안전장치가 나와 있다. 한국에서 가져오는 전기제품의 콘센트의 앞이 막혀있는 경우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져오는 가전제품의 콘센트를 확인한 후 챙기기 바란다.

2) 눈 내리는 아프리카 튀니지

옷장을 열어보자. 많고 많은 옷 중 무엇을 가지고 가야할지 고민 된다. 누구나가 제일 먼저 아프리카인 튀니지를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아프리카니까 덥겠지. 반팔, 반바지를 많이 챙겨야겠어!' 맞는 말이다. 튀니지는 아프리카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더위에 많은 단원들이 힘들어 한다. 하지만 항상 더운 것만은 아니다. 튀니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있어서 4계절의 의복이 모두 필요하다.

A. 봄(3~5월)과 가을(10~11월)

온도와 일교차 등 한국의 봄, 가을과 동일하므로 크게 고려할 사항은 없다. 간편한 복장위에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카디건, 얇은 점퍼나 티셔츠 등 쉽게 착·탈의가 간편한 옷을 준비하면 좋다.

B. 여름(6~9월)

현지의 여름은 상상 그 이상이다. 여름 의복은 자주 갈아입고 세탁해야 하므로 넉넉히 가져오는 것이 좋다. 반소매 상의와 반바지도 필수이다. 하지만 햇볕에 피부가 그을리는 게 싫다면 얇은 긴소매 옷을 입는 것도 방법이다.

*유의사항

튀니지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여성은 노출이 심한 옷을 피해야 한다. 유명관광지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무릎 이상으로 올라가는 짧은 치마와 반바지 착용은 현지인들의 지나친 관심을 받기 십상이다.

C. 겨울(12~2월)

일부 산간지역에선 눈도 내린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의 초겨울 온도와 비슷하며 매섭게 추운 날씨는 아니다. 문제는 난방이다. 모든 건물들이 더운 여름을 견디기 위한 설계를 하다 보니 겨울철에는 실내가 실외보다 더 춥게 느껴진다.

따라서 실내용으로 수면바지와 수면양말 등을 가져오면 유용하다. 현지에서도 쉽게 구입 가능하니 1-2개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 외출용 외투도 꼭 준비해야 한다.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한 벌로는 부족하며 목도리나 장갑 등도 준비하면 좋다.

Tip

- 현지에서의 의류구매 : 많은 브랜드와 제품들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구 브랜드에 서구형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평균 체형엔 좀 어색하거나 안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
- 의류 세일 기간 : 1년에 2회 여름(8월)과 겨울(2월)에 대규모 세일을 한다. 의류를 구입하고 싶을 땐 잠깐 기다렸다가 세일 기간을 이용하는 것도 절약하기 위한 방법이다.
-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의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격식을 갖춘 옷차림이 요구되므로 정장 스타일의 의복이 필요하다. 체육 분야와 같은 곳은 간편한 복장을 많이 필요로 하므로 파견에 앞서서 기관의 성격을 미리 알아본 후 챙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 고가의 의류나 액세서리는 한국에 두고 오는 게 좋다. 튀니지에서는 멋을 내기보다는 평범한 편이 더 좋다. 괜한 고가의 물품 착용은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
- 세탁소 이용 : 세탁소도 많이 갖추어져 있다. 이용가격은 한국과 비슷하다.

3) 시원한 국물 맛이 그리워지는 순간

현지에서 피자, 스파게티, 샌드위치 등으로 식생활을 하다보면 문득 한국의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이 떠오른다. 현지 정착에 있어서 음식은 정말 중요한 요소이므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튀니지에는 한국음식점은 물론 한국 식료품점이 전무한 상황이다. 다행히 일부 대형마켓 까르푸(Carrefour), 모노프리(Monoprix), 제앙(Geant)에서 약간의 아시아 식료품과 간장, 참기름 등의 소스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중국, 태국 등의 제품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맛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꼭 필요한 필수품은 아니지만 수하물에 여유가 있다면 간단한 몇 가지는 챙겨 오는 게 좋다.

A. 현지구매 불가한 품목

분류	품목	필요도 권장량	참고사항
장류	고추장	★★★★★ 2kg	- 기호에 따라 튀니지 양념으로 대체가 가능하기도 함.
	된장	★★★★ 1kg	- 대체할 만한 현지 양념이 없음.
건조식품	미역, 김	★★★★ 	- 조미김은 격려물품으로 연 2회 지급되나 생김이나 미역은 전무함.
	마른 멸치, 다시마	★★★ 500g	- 멸치의 경우 간혹 마트에서 구매 가능하지만 맛이 다르고 비림.
	나물 및 건어물	★★★ 500g	- 현지 구입이 불가능. 가볍고 장기 보관이 가능하므로 준비해오는 것도 좋음.
인스턴트식품	라면	★★★★ 5개 ~ 10개	- 라면수프만 준비해오는 것도 좋음.
	카레, 짜장	★★★ 1개 ~ 2개	- 조리법이 간단함.
	통조림 류	★★	- 유통기한이 길어서 장기간 보관 가능. - 참치 통조림은 현지 구매 가능.

B. 현지에서 구매 가능하지만 한국 구매 추천 제품

품목	필요도 권장량	참고사항
고춧가루	★★★★★ 	- 현지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향신료의 향이 매우 강함.
참기름	★★★★ 1병	- 가격이 비싸고, 외국 제품이라 향이 많이 다름.
간장	★★★★ 1병	- 가격이 비싸고, 짠맛의 농도가 많이 다름.-

C. 현지 구매가 용이한 제품

소금, 설탕, 깨, 후추, 올리브유, 튀김용 기름 등은 현지에서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맛을 내는 조미료도 많이 구비되어 있다.

4) 소중한 나의 건강, 나의 몸, 나의 피부

A. 약품 챙기기

튀니지는 인접 국가에서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올 정도로 아프리카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한다. 또한 현지에서 판매하는 약은 대부분 유럽 수입품으로 좋은 약품들이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특별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품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간 복용량을 가지고 오거나 영문 처방전을 꼭 받아 와야 한다. 또 간혹 알레르기나 피부 트러블이 있는 사람, 개인 영양제 등이 필요한 사람들은 간단한 본인 맞춤 약품들을 챙겨 와야 한다.

Tip

단원 파견 시 사무소에서 개인구급함을 지급하며, 처방이 필요 없는 기본 약품들은 사무소에서 구비하고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B. 화장품 및 욕실 용품

주요마트나 브랜드 매장에서 거의 다 구입할 수 있다. 대부분 유럽 브랜드로 질도 좋으며 가격도 한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굳이 많이 준비해 올 필요는 없다. 단,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사람들은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적정량 가져 오는 것을 추천 한다.

C. 선크림과 선글라스

계절에 상관없이 태양은 매우 강렬하여 외출 시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현지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최소 1개씩은 가지고 와야 한다.

D. 안경과 콘택트렌즈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라면 2-3개 정도 챙겨오는 것이 좋다. 현지 안경점이 있지만 안경테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렌즈의 가격도 굉장히 비싼 편이다. 콘택트렌즈 와 세척액 역시 구매가능 하지만 가격이 높으니 준비하는 것이 좋다.

5) 여가 생활 제품 및 기타

쉽지 않은 단원 생활을 견디게 해주는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여가 생활이다. 이와 관련된 물품들을 살펴보자.

A. 운동용품

가장 쉬우면서 흔하게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은 운동이다. 운동 시설 역시 비교적 잘 갖 추어져 있다. 운동을 하려면 복장, 신발 그리고 공과 라켓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도 구할 수는 있지만 가격과 질적인 측면에서 만족하기가 어렵다. 단원들은 수영과 헬스, 구기 종목 등을 많이 하는 편이다. 먼저 수영은 현지의 무더운 여름을 날려버리기 에 제일 적합한 운동이다. 수도인 튀니스에는 실내 수영장이 여러 곳 있으며, 아름다운 지중해 해변에서의 해수욕도 매력적인 여가활용 방법이다. 수영복은 필수이다. 실내 수영을 하려면 실내 수영복과 물안경, 수영모 등 관련 용품을 한 개씩 준비하면 유용하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소규모이긴 하지만 헬스장이 곳곳에 있어서 단원들이 가장 많이 즐기고 있다. 웨이트 트레이닝용 장갑은 현지에 없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남자 단원의 경우 종종 단원이나 현지인과 어울려 축구, 농구 등의 구기운동을 즐긴다. 여가 활동으로 꾸준히 할 계획이면 종목별 신발과 공을 준비해 오는 게 좋다.

B. 악기

전문분야가 아니어도 취미활동으로 즐기는 경우가 있다. 간혹 휴대할 수 있는 기타나 플루트, 바이올린 등을 준비해 와서 연주도 하고 레슨도 받는 경우가 있다.

C. 인터넷뱅킹

현지에서도 한국의 인터넷 뱅킹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생긴다. 한국에서 하던 금융활동의 유지를 위해서는 계좌이체가 필요하다. 이때 인터넷 뱅킹이 필수이다. 출국 전 한국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를 다운 받아 오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반드시 보안카드를 함께 챙겨 와야 사용이 가능하다. 간혹 보안카드를 챙기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챙기기 바란다.

D. 해외사용 가능 신용카드

국내외 인터넷 쇼핑에 쓰이기도 하고 국외 여행 시 티켓구매, 여행지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비용으로 미리 준비 해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국외 휴가시에 각종 예약은 대부분 카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월한 여행 준비를 위해 필수이다. 현지에선 비자(VISA)카드가 주로 사용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6) 배단원 추천물품

A. 활동분야 관련자료

전공서적, 교재, 악보 등 단원의 활동 분야에 따른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교육 분야나 기술전수 등의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챙겨오면 좋다. 현지에서 구하려 하면 영어 원서나 프랑스어 서적만 간혹 구매가 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전문서적의 경우 찾기가 힘들다. 이를 위해 자신의 봉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서적의 경우 필수적으로 챙기도록 하자.

B. 젓가락

하루에 한 번은 꼭 손에 쥐게 되는 물건이 바로 젓가락이다. 현지에서는 서양식으로 숟가락과 포크, 나이프를 사용한다. 따라서 젓가락은 일부 대형마트에서만 판매하고 그 질 역시 한국을 따라오지 못한다. 친구 초대에 대비해서 여유롭게 가지고 오길 바란다. 참고로 젓가락 세트를 현지인에게 선물로 주는 것도 좋다.

C. 필기도구

설마 필기도구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물론 현지에도 공책, 펜 등 각종 문구류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조금 다르다. 공책의 경우 대부분 아랍어 필기를 위한 것들이다. 학창시절 음악시간에 쓰던 오선지처럼 옆으로 줄이 그어져 있어서 아무리 정리를 해도 깔끔한 느낌이 오지 않는다. 필요할 것 같다면 정리용으로 사용할 노트 2-3권 정도를 준비해오면 좋다. 펜은 비교적 여러 종류가 있다. 빅(Bic), 스테들러(Staedtler) 제품 등이다. 하지만 대부분 볼펜 혹은 수성펜이며 볼펜 촉이 얇은 젤러 펜이나 하이테크 펜 등은 구매할 수 없다.

D. 겨울부츠

겨울철에는 우기인데다 기온이 낮으므로 겨울용 부츠가 유용하다. 부츠는 현지에서 구매가능하지만 크기, 길이 등을 고려하면 스타일에 맞는 부츠 찾기가 어렵다. 부츠를 애용하는 사람이라면 권한다.

E. 우산

튀니지는 우기인 겨울철에 비가 많이 내린다. 하지만 대부분 소나기처럼 잠깐

내리고 그치기 일수다. 비를 항상 따라다니는 건 바로 바람이다. 이곳에서도 우산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판매되고 있는 우산은 쉽게 망가지고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해오면 좋다.

F. 슬리퍼
디자인이나 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 편이다. 국민아이템인 삼선슬리퍼의 경우 한국에 비해 3배 정도 비싸니 왠지 사기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온돌이 아닌 서구식 난방 형태이기 때문에 실내용 슬리퍼를 몇 켤레 준비하면 유용하다. 보온효과가 있는 따뜻한 슬리퍼면 더욱 좋다. 실외용은 편하게 신을 수 있을 정도로 한 켤레 정도면 충분하다.

Tip

짐을 챙길 때 개인 필요 물품에 추가하여 제시된 모든 물건을 챙기면 당연히 제한된 무게를 초과하게 될 것이다. 열거된 물품 중 필수물품과 현지 구매가 어려운 것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게 좋다. 개인 필요에 따라 물품을 순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 하다. 물건을 챙기다 보면 필요한 것은 많고 무게는 제한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 본인의 생활모습을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2. 편의시설 습득하기

가. 이동할 때는 어떻게? - 대중교통 이용하기

기관출근, 약속, 여행, 업무 등 거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이 바로 교통수단이다. 한국만큼 편리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튀니지에도 곳곳을 연결해주는 대중교통이 있다. 우리의 발과 같이 소중한 현지의 대중교통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시내버스

공공 버스업체에서 운영하는 노란색 버스와 민간 버스업체에서 운영하는 하얀색 버스 두 가지로 나뉜다. 요금제도는 한국과 동일하게 일정기본금액에 구간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A. 공공버스(노란색)
버스 2개를 연결한 대형굴절버스와 일반 크기 버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버스 정면과 측면에 버스의 번호와 목적지가 표기되어 있으며 주로 아랍어 표기를 하고 있다. 요금은 구간제 요금을 적용하며 기본 320밀림(Millim)에서 시작된다. 비교적 장거리를 이용하여도 1디나르(TND)를 넘지 않는 저렴한 요금이다.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의 보호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이용자 수가 정말 많다. 버스 뒷문으로 승차한 후 승무원에게 목적지를 말하면 거리에 따라 색이 다른 티켓에 도장을 찍어준다. 티켓 수령 후에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배차간격은 버스번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분~20분 정도 간격으로 운행한다.

티켓구분	노란색	파랑색	초록색	검정색	빨강색
가격(Millim)	320밀림	470밀림	650밀림	780밀림	980밀림

유의사항 및 Tip

- 이용 승객수가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안전상의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신체적인 접촉이나 소매치기 등의 위험이 있으니 유념하여야 한다.
-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개월 단위의 정기권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격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매번 티켓을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B. 민간 사설버스(하얀색)
사설버스는 공공버스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목적지를 프랑스어로 표기하여 알아보기 수월하며 좌석배치 역시 한국의 좌석버스와 비슷하다. 사설버스는 공공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좌석 수를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이자 다른점은 좌석에 사람들이 다 차면 '만원버스(Complet)' 라고 버스 앞쪽에 표시하고 더 이상 사람을 태우지 않는 것이다. 요금은 기본요금 1디나르(TND)에서 구간제 요금을 적용할 경우 1.8디나르 (TND)까지 부과된다. 민간 사설버스의 요금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버스의 경우 문이 앞쪽에 하나밖에 없어 탑승할 때 운전기사에게 지불한다. 일반버스의 경우 요금만 수금하는 승무원에게 목적지를 말한 후 티켓을 받고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배차 간격은 일반적으로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C. 유의사항

중간 정류장에서 검표원이 탑승해서 표를 검사하기도 하니 버스표는 내릴때까지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8) 시외버스

현지 주요도시를 연결하며 정해진 운행 시간표에 따라 운행된다.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유용하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비교적 신호와 규정 속도를 잘 지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점이 있다. 단점은 운행 편수가 많지 않아서 장거리의 경우 배차 간격이 길어 원하는 시간에 탑승하기가 어려운 점과 운행지역 역시 많지 않다는 점이다.







❶ 공공 시내 버스 ❷ 시외 버스 ❸ 남부지역 행 버스 터미널 ❹ 북부지역 행 버스 터미널

Tip

*수도인 튀니스 내 시외버스 터미널은 목적지 방향에 따라 두 곳으로 구분되므로 꼭 터미널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참고 : http://www.sntri.com.tn).

- 북부지역 운행 : Gare routiere Nord (Bab Saadoun)
- 남부지역 운행 : Gare routiere Tunis Sud (Bab El Fellah)

9) 메트로(Metro)와 TGM

메트로는 수도인 튀니스와 수도권 근교(튀니스-마누바-아리아나-엘무르 등의 지역)를 연결하는 지상전차의 개념이다. 1호선부터 5호선까지 운영되고 있다. 공공버스와 함께 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요금제를 비롯한 모든 것이 공공 버스와 동일하다. 다른 점은 티켓을 각 정거장 매표소에서 미리 구매한 후 탑승한다는 점이다.

TGM(Traine Grande Metro)은 수도인 튀니스와 근교인 카르타지와 라 마르사(La marsa) 지역을 연결한다. 탑승이나 운영은 메트로와 동일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열차의 개념이다.




❶ 시내 한 복판의 매트로 ❷ TGM

유의사항 및 Tip

-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승객 수가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신체적인 접촉이나 소매치기 등의 위험이 있다. 늦은 시간은 가급적 탑승을 자제하고 탑승 시에도 문 앞에 서 있는 경우엔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우니 좌석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개월 단위의 정기권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격할인은 물론 매번 티켓을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10) 기차

튀니스와 근교를 연결하는 근거리 노선(Suburban ligne)과 주요 관광지와 대도시를 연결하는 장거리 노선(Grande linge)으로 구분되어 운행되고 있다. 근거리 노선의 경우 1디나르가 넘지 않는 요금 및 탑승 방법이 메트로와 동일하나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는 장점이 있다. 배차는 낮 시간에는 보통 1시간에 3~4회 운행하지만, 새벽이나 밤의 경우에는 1시간에 1회 정도로 운영된다. 장거리 노선은 일반(Direct Climatise) 열차와 고속(Express)열차로 구분된다. 또한 같은 열차

내에서 좌석의 등급이 나누어져 있어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좌석은 지정좌석제가 아니라서 미리 탑승하여 좌석을 선점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운이 없으면 착석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좌석은 일반열차의 경우 C클래스와 1등석, 2등석으로 구분된다. 요금은 1등석이 2등석에 비해 30~40% 더 비싸다. 고속열차는 좌석구분이 없으며 요금은 일반열차 1등석과 동일하지만 속도는 더 빠른 장점이 있다.

Tip

- 근거리 노선의 경우 저녁 이후의 탑승은 매우 위험하다. 승무원이 없으며 열차 운행 중에도 문이 닫히지 않거나 승객이 임의대로 열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크다. 또한 운행지역 자체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소매치기, 강도 등의 위험이 특히 높다.
- 단기간 이동이 많은 튀니지 여행을 할 경우, 장거리 패스권(Carte bleue)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열차의 종류, 좌석 등급 그리고 희망 탑승일 등을 고려하여 이용하면 편리하고 요금 절약도 할 수 있다. 열차와 버스를 연계한 관광 상품도 갖추고 있다. 패스권의 구매는 1주일 단위(7일, 15일, 21일)로 가능하며, 날짜와 등급에 맞는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준 비물은 사진 2매와 신분증.
- 열차 내에서 검표원이 표를 확인하므로 목적지에 도착 전까지는 티켓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홈페이지(http://www.sncft.com.tn/) 참고.

11) 택시(TAXI)

A. 일반택시

버스와 메트로 등 대규모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대부분 택시로 이동한다. 보통 노란색이며 단원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기본요금은 400밀림으로 100m 이동마다 30밀림이 추가되는 요금제로 운행된다.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야간할증요금이 적용되어 주간요금대비 1.5배 증가된 요금제로 운행한다.(야간 기본요금 600밀림, 100m마다 따라 45밀림씩 추가)

콜택시 알로(알로택시)

택시회사에 전화하면 신청한 지역 가까이에 있는 택시를 보내주는 형식이다. 우리나라의 콜택시 운영방식과 같으며 콜서비스 이용시 미터기 운행 요금에 콜 비용 1~2디나르가 추가된다.

B. 합승택시

우리나라 9인승 승합차를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이다. 일정한 주요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합승하고 내리는 방식이다. 별도의 정류장은 없으며 목적지에 가까운 곳에 내려준다. 1인당 이동거리에 따른 승차금액을 받는다. 요금은 500밀림~1.5디나르 사이로 저렴하다. 버스나 메트로가 닿지 않는 곳이나 택시를 타기엔 거리가 부담스러운 경우에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정확한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일반택시도 합승택시의 개념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

Tip

- 튀니스 공항 입국장(1층)에서 연결된 택시를 이용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제시하고 이용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금액을 높게 부르기 때문에 미터기 계산을 요구하거나, 출국장(2층)에서 탑승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택시 탑승시 짐이 많을 경우 짐 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10kg 이상의 짐은 1디나르의 짐 값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마음씨 좋은 택시 기사를 만나면 짐 값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 있지만 혹시 요구하더라도 부당한 것은 아니다.
- 간혹 택시 기사들이 요금계산기의 버튼을 눌러 금액을 올리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12) 르와지 (Louage)

9인용 승합차에 목적지가 같은 승객 8명이 승차하면 출발하는 꽤 합리적인 교통수단이다. 튀니지 내 도시 곳곳을 연결한다.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근교의 경우 대기시간이 10-20분 정도로 짧지만, 이동량이 많지 않은 소규모 도시나 원거리 지역인 경우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자칫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경우 모자란 인원의 승차 금액을 탑승인원이 나누어 내면 출발 가능하다. 승차요금은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소요시간에 따른 정찰제 요금이며 버스나 기차에 상응하는 요금이다.




❶ 밥 알리우아 르와지 탑승 역 ❷ 몽세프 베이 르와지 탑승 역

버스와 기차가 운행하지 않는 근거리 지역과 소규모 지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운전이 거칠어 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Tip

목적지 별 르와지 탑승 역

- 북서부 지역 : 밥사둔 역(Station de Bab Sadoun)
- 남부 지역 : 몽세프 베이 역(Station de Moncef bay)
- 캡봉 지역 및 남서부 지역 : 밥 알리우아 역(Station de Bab Alioua)

다. 현대인의 필수품 설치하기(통신)

1) 휴대전화

현지 휴대전화는 GSM이라는 디지털 이동전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금액을 먼저 충전하고 이용하는 선불 요금제로 운영된다. 그럼 이제 휴대폰 개통과 각 통신사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알아보자.

A. 휴대폰 개통하기

개통을 위해서는 GSM 방식의 휴대폰이 필요하므로 대리점을 방문하여 맘에 드는 휴대폰을 먼저 구매한다. 이후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이동통신사의 고객 등록 및 심카드(SIM Card) 구매 후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개통이 완료된다. 개통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이나 공증을 거친 여권 사본이 꼭 필요하므로 먼저 챙겨야 한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가지고와서 현지 심카드만 구입하면 사용 가능하다.

B. 휴대폰 요금 충전하기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용 통신사의 충전카드를 구매하는 것이다. 통신사별 고유번호와 카드 뒷면의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요금을 충전한다. 카드는 5디나르당 300밀림의 수수료가 부가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상점직원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충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지불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충전 된다.

C. 이동 통신사 비교하기

튀니지에는 4개의 이동통신업체가 있으며, 같은 통신사 회선 내 통화 시에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비교를 통해 각 통신사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알아보자.

Tip

난 스마트폰 유저 : 최 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한국의 대리점에서 컨트리락(Country lock)을 풀어서 가지고 오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한국의 가족,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싶은 경우 한국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카페나 레스토랑, 공항 등에서 무선 와이파이(Wi-Fi) 방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 유선전화

주거지에 설치하는 유선전화는 국영 통신사인 튀니지 텔레콤(Tunisie Telecom)이 전담하고 있다. 요금제는 월 기본요금과 통화량에 따른 요금계산방식과 월정액 요금제가 있다. 선불 또는 후불제로 구분된다. 월정액 요금은 사용시간과 요금을 정할 수 있으며 6개월 단위의 선불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한 달 사용료를 감액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단원들의 경우 유선전화 이용량이 많지 않다. 하지만 유선통화 간 통화시 저렴한 요금은 물론 다중 통화시스템과 월정액 무제한 통화 등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모뎀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은 무선수신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모뎀 케이블 선 연결을 위하여 유선전화 설치는 꼭 필요하다.

- 튀니지 텔레콤 웹사이트: http://www.tunisietelecom.tn.

3) 인터넷

튀니지의 인터넷 환경은 한국의 잘 갖추어진 환경에 비해 조금 모자란 수준이지만, 시설과 서비스 그리고 보급률에 있어서 아프리카 내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인터넷 통신업체로는 전용선(4G)을 활용하는 우레두(Ooredoo), 탑넷(Topnet), 오랑지(Orange) 등이 있으며, 모뎀을 활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도 다수 있다. 여러 통신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업체간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나 이용요금은 거의 동일하다. 현재 튀니지에는 사용량에 따른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모뎀 사용시 25G/25디나르, 4G 우레두 연간사용료 380디나르임). 선택에 따라 월 부과되는 요금이 상이하다. 요금 결제는 매달 할 수도 있지만, 일정기간 금액을 선불로

결제하는 경우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요금납부는 별도의 고지서가 없어 인터넷 업체에 직접 납부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인터넷 케이블선 사용료를 유선전화 업체인 튀니지 텔레콤에 또 납부하여야 한다. 케이블 사용료도 선택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무선 수신기도 이용가능하다. 프랑스 통신업체인 오랑쥐(Orange)가 운영하며 인터넷 무선 수신기를 구입하여 일정금액을 미리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휴대성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사용지역과 사용 시간대에 따라 인터넷 속도가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 무선 수신기는 USB 형식인 클레(cle)와 공유기 형태인 플라이박스(flybox)로 구분된다. 요즘 많이 쓰이는 플라이박스의 경우는 한 달 이용료가 39디나르이다. 무선 수신의 경우 이용 고객수를 늘리기 위하여 장기간 할인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매 시에 할인 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것 이 좋다.

Tip

- 인터넷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여권, 체류증)을 지참하고 주거지 주소를 적어가야 한다. 신청서 작성 후 금액을 지불하면 설치 및 구입이 가능하다.
- 한국과 통화량이 많은 경우엔 한국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후 가지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내 통화료로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통화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회선끼리 무료 통화가 지원되는 장점이 있다. 튀니지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려면 꼭 모뎀 접속 방식의 인터넷을 신청해야 한다.

라) 현지 언론 매체

언론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전 튀니지 정부는 언론과 방송을 통제해왔다. 하지만 2011년 1월에 일어난 재스민 혁명이 전환의 계기가 되어 언론에서도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재스민 혁명 이후 전 여당 신문이 폐간되었고 51개의 새로운 신문과 잡지들이 생겨났다.

1) 신문 (주요 일간지)

A. 아사바흐(Asabahs)
1951년 2월 1일 창립되었고 튀니지에서 가장 많이 읽는 아랍어 일간지이다.
http://www.assabah.com.tn

B. 알 추루크(Al Chourouk)
1987년 살라헤딘 엘 암리(Slaheddine El Amri)에 의해 만들어진 아랍어 일간지이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회 발행된다. 아사바흐 다음으로 많이 보는 아랍어 일간지 이다.
http://www.alchourouk.com

C. 라 프레스 드 튀니지(La Presse de Tunisie)
1936년 3월 12일에 발간된 프랑스어 일간지이다. 이 신문은 튀니지 최초 민간 신문이다. 본사는 튀니스에 있으며 단원들이 가장 많이 구독하는 신문이다.
http://www.lapresse.tn

D. 르 템(Le Temps)
1975년 6월 1일에 발간된 프랑스어 일간지이다. 아랍어 일간지 아사바흐의 하비브 체이크로호(Habib Cheikhrouhou)의해 설립되었다.
http://www.letemps.com.tn

E. 르 코티디앙(Le Quotidien)
2001년 4월 살라헤딘 엘 암리(Slaheddine El Amri)에 의해 만들어진 프랑스어 일간지이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회 발행된다.
http://www.lequotidien-tn.com

2) TV 방송

튀니지 대부분의 가구는 위성 안테나를 설치한다. 현지인들은 위성을 통해 중동 및 이집트, 아시아, 유럽의 여러나라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위성 TV 방송국은 나일샛(Nilesat)위성으로 주로 아랍권 나라의 방송을 전송하고 있다. 핫버드 (Hotbird)를 통해 이탈리아와 다른 유럽 나라들의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현재 튀니지에는 국영방송(Télévision Tunisienne 1, Télévision Tunisienne 2)과 2개의 민영방송인 한니발TV(Hannibal TV), 네스마(Nessma)가 있다.

웹사이트

- 텔레비전 튀니지 1(Télévision Tunisienne 1) : www.tunisiatv.tn
- 텔레비전 튀니지 2(Télévision Tunisienne 2) : http://www.tunisie21.tn
- 한니발 TV: http://www.hannibaltv.com.tn
- 네스마: http://www.nessma.tv

3) 라디오

A. 국영방송

라디오 튀니스(Radio Tunis), 라디오 튀니지 컬쳐(Radio Tunisie Culture), 라디오 쥔느(Radio Jeunes), RTCI

B. 지방방송

라디오 르 케프(Radio le Kef), 라디오 수스(Radio Sousse), 라디오 모나스티르(Radio Monastir), 라디오 스팍스(Radio Sfax), 라디오 카이루안(Radio Kairouan), 라디오 가프사(Radio Gafsa), 라디오 타타윈(Radio Tataouine)

C. 민영방송

모자이크 FM(Mosaïque FM), 자하라 FM(Jawhara FM), 지투나 FM(Zitouna FM), 셈즈 FM(Shems FM), 익스프레스 FM(Express FM)

4) 인터넷 매체

튀니지는 아프리카에서 인터넷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또한 북아프리카 국가중에서도 인터넷 인프라가 가장 잘 형성되어 있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튀니지는 인구의 34%인 360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세이셸 공화국 다음으로 인구대비 인터넷 사용이 많다. 아프리카에서 정보통신 분야가 제일 발달했지만 어두운 면도 많았다. 이전 정부에서 '인터넷 비밀경찰' 600명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해킹해 온라인 통신을 감시했다. 또한 정부 비판 웹사이트가 자주 차단되어 왔다. 2011년 1월 14일 에 일어난 혁명 이후 벤 알리 전 현지의 모든 인터넷 검열을 종료한다고 선언하였다.

현지인들이 많이 접속하는 웹 사이트

순위	웹 사이트	순위	웹 사이트
1위	페이스북(Facebook.com)	11위	MSN(msn.com)
2위	구글 튀니지(Google.tn)	12위	메가업로드(megaupload.com) : 정보 공유)
3위	구글(Google.com)	13위	빙닷컴(bing.com) : 검색
4위	유투브(youtube.com)	14위	트위터(twitter.com)
5위	구글 프랑스(google.fr)	15위	모자이크FM(mosaiquefm.net) : 라디오
6위	블로그스포트(blogspot.com) : 블로그 사이트	16위	코망카마르쉐 (commentcamarche.net) : 사용방법 문의
7위	야후(yahoo.com)	17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com)
8위	윈도우즈 라이브(Windows Live)	18위	엣튀니시아(attounissia.com.tn) : IT신문
9위	튀니지아샛(tunisia-sat.com) : 포럼	19위	포쉐어드(4shared.com) : 정보 공유
10위	위키피디아(wikipedia.org)	20위	콘듀잇(conduit.com) : 운전

라. 우체국 살펴보기

튀니지의 우체국은 우편이나 소포의 발송업무는 물론 기본적인 은행업무와 공과금 수납 등의 업무를 하는 등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 현지 우체국은 은행업무 창구와 우편관련 업무 창구를 구분해서 운영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용무에 맞는 곳의 번호표를 뽑은 후 순번을 기다리면 된다.

1) 정이 오고 가는 우편과 소포

현지 생활을 하다보면 가족,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 편지나 엽서 등을 보내게 된다. 부족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받기 위해서나 현지의 특산물을 선물하기 위해, 임기 만료 후 짐을 보내기 위해 누구나 한 두 번은 꼭 이용하게 된다.

튀니지에서 한국으로 발송하기

우편물의 발송은 국제특송우편(Rapide poste)과 일반항공우편으로 구분된다. 요금은 무게를 기반으로 하여 책정되며 발송시에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상자나 파우치를 사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송우편의 경우 소요일이 짧다. 송장번호를 이용해 위치와 배송상태를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요금이 비싸다. 또한 일반 우체국이 아닌 특송우편지점(Rapide poste agence)을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일반우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이 장점이지만 배달 소요시간에 길고 수신여부와 배송상태를 추적할 수 없다.

구분		소요일	가격
편지, 엽서	특송우편	4일 (주말 제외)	약 3디나르(TND)
	일반우편	2주 이상	약 1디나르(TND)
소포	특송우편	4일 (주말 제외)	1kg / 35디나르(TND)
	일반우편	10일 내외	1kg / 10디나르(TND)

한국 발송 기준

A. 한국에서 튀니지로 소포 받기
한국에서 튀니지로 소포를 발송할 경우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하면 통상적으로 주말 제외 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일반항공을 이용한 경우는 10일 정도 소요되며 무게에 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원들 대부분은 본인의 개인 주거지 주소로 소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주거가 정해지지 않은 단원의 경우에는 KOICA현지 사무소로 소포를 받기도 한다.

웹사이트

- KOICA 사무소 주소: Immeuble Premium, 1er etage B1-3 et 1-4, Av. De L'euro, Les Berges du Lac 2, Tunis
- 제때 받지 못한 소포 찾는 방법 : 집에 있지 않았거나 사정상 소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체국 직원이 소포를 보관하고 있는 가까운 우체국의 주소와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적은 확인서를 두고 간다.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시되어 있는 곳으 로 찾아가서 수령하면 된다.
- 소포 물품 항목에 기재하면 안 되는 것들 : 튀니지는 세관의 검열이 엄격한 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열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가전제품, 서류, 책, 음식 등의 항목과 관련된 내용을 물품 항목에 기재하면 검열의 대상이 된다. 통과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공과금 및 기타 요금 납부

생활에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바로 주거와 관련된 공과금의 납부이다. 각 공과금은 운영하는 회사의 지점에 직접 납부해도 되지만 우체국에서 대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며 편리하다.
우체국은 대체로 오전에는 이용 고객이 많지 않으나 오후에는 이용자 수가 많아 장시간 기다려야 한다.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오전 일찍 방문하는 것이 좋다.

Tip

- 우체국 공과금 납부 수수료 : 해당 공과금을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직접 내는 경우 수수료가 없지만, 우체국에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밀림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 현지의 공과금 체계 : 튀니지의 대부분의 공과금(전기, 가스, 유선전화, 수도세)은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3개월(3,6,9,12 월) 단위로 청구된다. 전기와 가스 사용요금의 경우 매번 검침을 통한 실사용량에 한하는 금액의 청구가 아니라, 추정치로 산출한 사용액의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다음번 고지서에 실사용을 계산하여 요금을 더 부가하거나 감해준다.

* 우체국 웹사이트
- 일반 우체국 : http://www.poste.tn/
- 특송 우편 : http://www.rapidposte.poste.tn/an/index.html

3. 알뜰살뜰 생활비 관리하기

가. 티끌모아 태산, 에누리 있는 환율, 환전

1) 환율

생활비는 미국 달러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튀니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전이 필수이다. 환전에 앞서서 꼭 알아봐야 할 것이 바로 환율이다. 소폭의 변동이 있지만 2018년 평균 환율은 1달러당 약 2.8디나르였다. 환율은 매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주거비, 어학비, 생활비 등의 목돈을 인출할 때는 반드시 환율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작은 변수이긴 하지만 인출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율에 따르는 차이도 커지기 때문에 환율이 좋은 때 인출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환율	미국(USD)	튀니지(TND)	한국(₩)	유럽연합(£)
	환율 1달러	3디나르	1,189원	0.89유로

2019년 5월 기준

- 국제 환율 정보 웹 사이트 : http://ko.exchange-rates.org

2) 환전

환전은 현지 공항, 은행, 우체국, 환전소 등에서 쉽게 가능하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세계 10개국 이상의 화폐 환전이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튀니지에서 한 국 원화(₩)는 환전이 불가하다.

단원들은 거래은행인 ABC은행에서 직접 디나르로 인출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환전이 필요하지 않다. 외화로 인출하는 것 역시 가능하므로 국외여행이나 임기 종료 시에도 외화로 직접 찾는 것이 유리하다.

Tip

디나르의 외화 환전의 경우, 외화의 디나르 환전영수증(유효기간: 3개월 이내)이 필요하다. 이는 튀니지 정부에서 외화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화-디나르 환전영수증을 제시해야만 환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영수증이나 은행 거래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나. 복잡한 은행 업무 한눈에 알아보기

현지 도착 후 KOICA 사무소의 주거래 은행인 ABC은행에서 단원별 개인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업무를 이용하게 된다. 계좌 개설 시에는 신분증(여권이나 체류증)을 구비하고 창구에서 계좌 개설을 요구하면 된다. 보통 단원들은 사무소에서 입금된 일정액의 생활비와 주거비를 인출하여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인출카드, 입금, 송금 등의 기타 업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ABC은행을 기준으로 하여 은행업무를 알아보자.

1) ABC 은행



모하메드5 거리(AV. MOHAMED5)에 있는 ABC 은행의 모습

ABC은행의 지점은 튀니스에 3곳(Avenue Mohamed5, Ariana, Lac), 수스에 1곳 있다. 업무 시간은 지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1~6월, 9~12월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7~8월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ABC은행 업무별 수수료 내역

	항목	수수료
1	계좌개설 및 유지	없음
2	계좌폐쇄	45디나르
3	개인수표 발행	없음
4	인터넷 뱅킹	없음
5	해외송금	0.20%
6	국내수신	없음
7	현금인출	디나르로 출금 시 0.20%
		외화로 출금 시 0.30%
8	KOICA 간의 계좌이체	없음

1) 은행업무 살펴보기

A. 입금

미국달러($), 유로(€), 튀니지 디나르(TND)등 환전 가능한 화폐는 모두 계좌로 입금 가능하다.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번호를 제시한 후 입금 내역 확인 후 서명만하면 되는 간단하게 끝난다.

B. 출금

미국달러, 유로, 튀니지 디나르로 출금가능하다. 현지 디나르 출금 시 0.2%, 달러나 유로(€) 출금 시 출금액의 0.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C. 해외송금

튀니지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려면 은행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은행 스위프트 코드(SWIFT CODE, 전 세계 은행을 식별하는 은행코드)/ B.I.C (Bank Identify Code), 은행 본점 영문 주소, 은행 영문명,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영문 이름, 연락처, 보내는 사람의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한국 주요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 영문명, 은행 본점 영문 주소

은행명	영문이름	SWIFT code	본점주소
국민은행	KOOK MIN BANK	CZNBKRSE	9-1, NAMDAEMUNRO-2GA, JUNG-GU, SEOUL, KOREA
기업은행	INDUSTRIAL BANK OF KOREA	IBKOKRSE	50, EULJIRO-2GA, JUNG-GU, SEOUL, KOREA
농협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NACFKRSEXXX	75, CHUNGJEONGRO-1GA, JUNG-GU, SEOUL, KOREA
신한은행	SHIN HAN BANK	SHBKKRSE	120, TAEPYUNGRO-2GA, JUNG-GU, SEOUL, KOREA
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KOEXKRSEXXX	181, EULJIRO 1-GA, JUNG-GU, SEOUL, KOREA
우리은행	WOORI BANK	HVBKKRSEXXX	203, HEOHYUNDONG-1GA, JUNG-GU, SEOUL, KOREA
우체국	KOREA POST OFFICE	SHBKKRSEK-PO	21-1, CHUNGMURO 1-GA, JUNG-GU, SEOUL, KOREA
하나은행	HANA BANK	HNBNKRSE	101-1, EULJIRO-1GA, JUNG-GU, SEOUL, KOREA
한국씨티 은행	CITIBANK KOREA	CITIKRSX	39, DADONG, JUNG-GU, SEOUL, KOREA

- 스위프트 코드(SWIFT Code) 확인 : http://www.theswiftcodes.com/south-korea

은행업무 관련 프랑스어 용어

은행 용어	내용
RIB Donneur d'Ordre / Bénéficiaire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계좌번호.
Nom	영어 표기법 이름. (여권표기와 동일하게 작성할 것)
CIN ou Passeport	주민번호나 여권번호를 쓰는 공간으로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를 기입.
Montant(En chiffres)	금액의 숫자 표기
Montant(En toutes lettres)	금액의 문자 표기.
En faveur de (Nom & Prénom du Bénéficiaire)	받는 사람 이름.
Titulaire du compte N/IBAN	송금할 은행의 계좌번호.
Nom de la Banque du Bénéficiaire	송금할 은행 이름.
Frais & Commissions ABC bank àla charge du - Bénéficiaire - Donneur d'ordre	수수료 부담자 선택. - 받는 사람이 부담할 경우. - 보내는 사람이 부담할 경우.

2) 카드와 개인수표

A. 신용카드, 현금출금카드

계좌를 개설할 때 신청 가능하며 은행을 찾기 어려운 지방단원인 경우 유용하게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경우, 발급 및 연회비로 45디나르가 부과된다. 신용·현금카드 모두 현금지급기를 통해 출금만 가능하다. 동일은행 출금기에서 출금 시 별도의 수수료가 없지만 타 은행 출금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된다.

B. 개인수표

계좌 개설 시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신용카드 혹은 현금카드와 같이 대형마켓이나 일반상점(옷 가게, 화장품가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금액이 큰 주거비나 학원비 등을 지불할 때도 개인수표를 사용할 수 있다. ABC은행은 달러 계좌이므로 디나르 결제 시에는 사용 당일 환율에 따라 계산되어 금액이 출금된다. 발급 받은 개인수표에는 계좌번호와 성명이 인쇄되어 있다. 사용금액을 기입하고 서명만 하면 되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인수표와 사용 예시

C. 인터넷 서비스

계좌개설시 신청하며 잔액 및 거래내역 등 간단한 계좌조회 업무만 가능하다

Tip

- 한국과는 달리 통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만을 소유하는 것이므로 은행 이용 시 거래(입, 출, 송금) 내역서를 받지 않으면 잔액 및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 창구에서 잔액을 적어주거나 말해주기도 하지만 확인을 위해서 는 '레즈 에크스트레 데 솔드(Les extraits de solde, 증서)'를 요구하여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ABC은행계좌는 달러 계좌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100디나르를 인출했을 때 거래내역서에는 당일 환율로 계산된 달러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 ABC 은행 웹 사이트 : https://abconline.arabbanking.com/tunis/

4. 마음의 안식처 – 집 임대하기

주거지 선택에서는 안전은 물론 본인의 기호, 근무지와의 거리, 접근성, 편의시 설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만큼이나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쉽지는 않지만 임기 동안 마음의 안식처이자 삶의 바탕이 되는 근원이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자.

튀니지의 주거지는 크게 빌라(Villa), 아파트, 스튜디오(Studio)로 나눌 수 있다. 빌라와 아파트의 개념은 한국과 동일하며 단독주택 역시 빌라로 부르며 주로 가족단위의 주거를 위한 규모이다. 스튜디오는 1인에서 2인 생활에 알맞은 작은 규모이다. 방 1개, 작은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고 빌라에 딸린 형태와 작은 스튜디오 형 아파트 등이 있다.

가. 나만의 집 찾기 - 주택 임차 실전 요령

주택의 임차에 앞서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주택 고려 사항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후 거주하고 싶은 지역을 정한 후 그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1)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경우

현지신문의 광고란(Petite Annonce)을 통해 집을 구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다. 임대광고란에는 위치, 가격, 가구포함여부, 집의 구조 등 간략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임대인과 약속을 정한 후 방문하여 마음에 드는 경우엔 계약을 하면 된다.

주택 관련 프랑스어 약식표기

약식표기	의미	약식표기	의미
rdc (rez-de-chaussée)	1층	ht st (Haute standing)	고급 / 고층
s+1/2/3 (salon + 1/2/3 pièce)	거실 + 방 1/2/3	ch.c (chauffage central)	난방
sdb,sde (salle de bain,salle d'eau)	욕실	g.v (gaz de ville)	도시 가스
jar (jardin)	마당	c.c (charge comprises)	유지비 포함
s-sol/.s/s (sous-sol)	지하	clim (climatiseur)	에어컨

2) 직접 신문광고를 내는 경우

현지 신문의 광고란을 이용해 단원이 직접 신문광고를 내는 방법이다. 임차인의 희 망거주지역, 희망거주형태(빌라, 아파트, 스튜디오 등), 희망가격, 거주인원, 연락처 등의 기본정보를 광고하면 임대를 원하는 집주인이 직접 연락을 주는 방식이다.

앞서 제시된 기본정보를 광고하는 것으로 하루 광고료가 기본 5디나르이며 기본에서 추가되어 내용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광고료가 조금씩 추가(최대 15디나르)된다.

Tip

구인, 구직, 임대, 임차 등의 개인광고는 평일보다 일요일에 집중된다. 따라서 현지인들도 일요일 신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정보수집, 광고를 위해서는 일요일자 신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3) 선배단원 도움 받기

가장 쉽게 집을 구하는 방법은 임기를 마친 선배단원의 집에 입주하는 것이다. 선배단원이 이미 거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임대인 역시 단원들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선배단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다. 선배단원들은 현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을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배단원들은 지역의 장단점과 분위기, 대략적인 임차가격 등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때문에 많은 단원들이 선배단원의 도움을 통해 주택을 임차하곤 한다.

4) 현지인을 통해 집구하기

현지 적응 기간 중에 기관동료, 홈스테이 가족, 현지어 선생님 등을 통해 집을 구하는 방법이다. 경우에 따라 많은 집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인과 튀니지인의 사고차이 때문에 안전, 편의 등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5) 중개인을 통해 집구하기.

중개인은 한국의 부동산 중개소의 형태인 에이전스(Agence)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중개인으로 구분된다.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 상당수의 매물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정 금액을 소개료로 지불해야 하며,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통상 1개월치 임차료를 수수료로 지불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 웹 사이트: http://www.tunisie-annonce.com/AnnoncesImmobilier.asp

6) 꼼꼼하게 확인하기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았다 하더라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또한 주택과 임대에 관련하여 많은 내용들을 합의해야 한다.

7) 주거 계약 시 체크리스트

1	대략적인(현지인, 선배단원들의 임차료) 임차료를 파악.
2	안전을 위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나 빌라 임대.
3	1층과 옥상은 피하도록 함. (여름철에 매우 더우며 각종 벌레들이 많음)
4	수도와 전기 확인. ① 난방기구(chauffage)확인 ② 수도의 수압 확인. ③ 가전제품확인(에어컨, 세탁기, 가스렌지 등)-실제로 작동시켜볼 것.
5	대문 및 창문 시건장치 확인-창문경보기 설치.
6	전기 및 수도료 등 공과금은 임대 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
7	계약날짜 이전의 공과요금(전기/가스/수도/전화 등) 지불내역 확인.
8	계약 시 보증금(Caution)은 본인 부담이므로 보증금 없이 임대하는 것을 권장.
9	파견 이후 주거지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의 체제비는 개인 비용.
10	집수리 시 비용문제 협의.
11	누수 확인(내벽의 시멘트 상태 확인-시멘트가 벗겨져 있거나 물이 흐른 자국 등을 확인).
12	집안 채광 확인(반지하 형태나 빌라 안 스튜디오 형식은 빛이 잘 들지 않아 집 안에 곰팡이가 생길 우려가 있음).
13	낮에 방문 추천(내부의 청결상태, 누수, 채광 등의 확인이 용이함).
14	수리를 약속한 경우 계약서 작성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15	집주인의 주거지 확인-집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 능한지와 연관됨.
16	선배단원들이나 기관 사람들의 도움을 최대한 활용.

8) 집의 유지 보수, 가전제품의 수리방법

집을 구하고 생활하다 보면 집의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개인이 구입한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 시 함께 주는 보증서(Garantie-일반적으로 1년 보증)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해당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면 무상 혹은 유상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구입하지 않고 임대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집이나 제품이 오래되어 생기는 문제의 경우 정확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가전제품이나 집의 유지보수 문제 등은 기술자를 통해 정비

하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높은 수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미리 대략적인 가격을 알아보고 현지인과 함께 해결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 서명하고 도장 찍고 - 주택 임차 계약하기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은 경우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임대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보증금이나 세부 계약조건 등을 확실히 하고 싶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계약서는 타바(TABAC)라는 작은 상점이나 문방구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튀니지의 경우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약식 계약서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집주인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랍어로 표기된 것과 프랑스어로 표기된 것 중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해서 작성해야한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엔 법적인 확인을 위해 한국의 동사무소에 해당하는 기관(Municipalité)에서 서명을 하고 공증을 꼭 받아야 한다. 이때는 집주인과 함께 방문하며 계약서, 신분증(여권, 체류증)을 지참해야한다. 공증을 받을 때 기관담당자는 임차인(단원)이 계약사항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이 때 본인이 이 계약에 대해 명확 하게 이해하고 대답하면 된다.

Tip

- 주거지 선택은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한 번 주거지로 결정이 되면 안전상의 이유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2년을 거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주지역의 안전, 냉난방 시설, 활동기관과의 거리, 편의시설의 위치, 대중교통 접근성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집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현지 물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거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높이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선배단원이나 현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신문 광고에 매물이 3개 이상 표기 된 경우는 부동산이거나 중개인인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현지에서 집을 임대할 때 1달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보증금은 단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난 후 집의 상태를 확인한다음 돌려주어야 하지만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계약 초기에 집주인과 협의를 잘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현지 임차인의 경우 1년 이상 임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장점을 이용해 보증금 없이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5. 감 잡았어! 생활 물가

가. 현지 물가 알아보기

한국의 물가와 비교하여 현지의 생활물가는 물품의 분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모두 알아볼 수는 없지만 크게 항목별로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대략적인 감을 잡아보자.

1) 식품

농산물과 같은 식재료와 과일의 경우는 매우 저렴하다. 비옥한 토지와 온화한 기후를 갖추고 있어서 질도 좋으며 생산량도 많기 때문이다. 한국에 비해 1/2에서 1/4 정도의 가격대이다. 가공식품은 항목과 브랜드 그리고 수입여부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다른 편이다. 현지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은 한국의 절반가격이지만 외국 수입품은 한국의 가격과 비슷하다. 육류와 해산물의 경우는 다른 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이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다. 특히 쇠고기와 양고기, 참치 등은 한국 가격에 비해서 정말 매력적인 품목이다.

2) 생산품

기초 생필품의 경우는 거의 국제기업 제품들이기 때문에 가격은 한국과 비슷하다. 이외 튀니지 생산제품의 경우는 30% 정도 더 저렴하다. 의류 및 잡화는 브랜드 매장에서 구매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가격과 거의 동일한 가격대이다. 하지만 브랜드가 많지 않아 선택의 폭이 좁고 체형이나 디자인을 고려하였을 때 구매의 어려움이 있다. 신 발은 상대적으로 많이 비싼 편이다. 운동화는 한국에 비해 50%에서 100% 정도 비싸며 구두의 경우는 가격 차이는 크지 않지만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3) 가전제품

가전제품의 경우 한국에 비해 약 20% 정도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TV, 냉장고 등 대형가전의 경우는 가격차이가 더욱 많이 난다. 소형가전의 경우는 가격차이가 적은 편이다.

4) 교통

단원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택시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지만, 다른 대형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와 메트로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다. 메트로와 공공버스는

한국에 절반 가격이며, 사설버스는 한국과 비슷하다. 시외 이동에 이용되는 르와지와 시외버스는 한국에 비해 조금 저렴한 편이다.

5) 외식 및 문화시설

맛있는 음식과 양질의 공연은 삶의 여유를 한층 더해 준다. 이런 측면에서 튀니지는 음식 가격에 큰 메리트가 있다. 현지인들도 즐겨먹으며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차파티, 크라페 등은 3~10디나르 정도이고, 레스토랑을 이용할 경우 1인 평균 20~35디나르까지 비용을 생각하면 된다. 문화시설의 경우 주로 단원들은 축제를 통해 음악감상이나 공연관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VIP의 경우 30디나르 이상이 들고 일반석은 보통 10~25디나르 정도 한다.

나. 기초물가 체감하기

현지에서 구매하는 기본적인 식품 및 생활용품은 지역, 구매 시기(할인기간, 계절), 구매 장소(마트, 시장 등)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생활용품의 경우 브랜드에 따라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다. 이 중 주요 물품들의 평균가를 조사해 보았다. 대부분 단원 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물건들이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분류	주요물품	가격 (단위:다나르)
식품	일본 쌀 10kg	95 TND
	이집트 쌀 1kg	3.5 TND
	계란 30개	5.5 TND
	토마토 1kg	3.6 TND
	고추 1kg	3 TND
	오렌지 1kg	4 TND
	양상추 1kg	1 TND
	당근 1kg	1.2 TND
가공식품	우유 1L	1.3 TND
	바게트 빵	0.2 TND
	요구르트 200mL	0.61 TND
	스파게티면 500g	0.4 TND
	치약 75mL	3.69 TND
	샴푸 380mL	3.5 TND
	생리대 중형	3.5 TND
생필품	빨래세제 1.6kg	6 TND
	휴지 18개	7.5 TND
	비누 1개	0.780 TND



PART II.. 튀니지 파헤치기

튀니지 파헤치기

1. 안전이 최고야 !

혁명 전 튀니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전하고 외국인이 거주하기에 좋은 나라로 손꼽혔다. 정치적으로 극단 이슬람 세력을 차단하고 안으로는 경찰국가로 정부가 치안을 통제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평온하고 강력 범죄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혁명 이후 절도와 강도 등의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가. 안전하게 살기

1) 테러관련 주요 사건

- 2002년 4월 제르바(Djerba)에서 알카에다의 조직원이 천연가스가 실린 트럭 1대를 몰고 유대교 예배당으로 돌진해 21명이 사망함.
- 2007년 1월 그롬발리아(Grombalia) 지역에서 테러단체를 튀니지 보안군이 공격하여 12명을 사살하고 15명을 체포함.
- 2008년 2월 남부 사막지역에서 알카에다에 의해 오스트리아인 2명 피랍사건 발생함.
- 2011년 5월 남부 레마다 지역에서 알카에다 마그레브지부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2명이 폭발물 벨트와 수류탄을 지낸 채 체포됨.
- 2015년 3차례 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과 정부측 안보역량 결집으로 안보정세의 안정적 관리 태세 유지중

- 테러분자들은 주로 리비아·알제리 국경지대(우리 여행경보상 철수권고지역) 등에서 암약하고 있으며, 치안당국의 대테러 소탕작전도 동지역에 국한
- 2018.10월 수도 중심가에서 2015년 이래 처음으로 테러가 발생했으나

** △피해규모가 경미하고 △자신의 소행임을 밝히는 테러단체가 나타나지 않는 등 안보적 함의는 일단 크지 않은 것으로 관찰됨.

* 2015년 대규모 테러사태(외국인 관광객 대상 △3월 바르도 박물관 및 6월 수스 관광지 테러 및 11월 대통령경호요원차량 자폭테러)

** 18.10월 튀니스 중심가에서 경찰차량을 대상으로 자살폭탄테러 발생(고학력 실업자인 여성 단독 테러범 1명 사망/부상자 20여명)

- 단, △경제안정을 구가했던 독재시절에 대한 향수 △장기실업상태인 고학력 청년층(29만명) 중심의 극단적 이슬람주의 확산 가능성 △2019년 총.대선 정국이 사회불안으로 연동될 가능성 주시 필요

2) 최근 정세

높은 실업률과 장기집권에 따른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으로, 고요했던 튀니지에 2011년 1월 재스민 혁명이 일어났다. 이후 튀니지 정부는 '정치적 민주화', '경제발전', '안보위협 해소' 의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경제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 빈번한 시위와 파업: 고용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농성이 지속되고 있고 그 외 종교,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시위가 발생하고 있음.
- 극단 이슬람 세력의 활동: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허용하고 튀니지를 극단 이슬람화 하려는 종교적 시위가 일어나고 있음.
- 약화된 공권력: 재스민 시민 혁명 당시 전국 11,000명에 달하는 죄수가 탈옥하였으며 강도나 절도 같은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높은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국민적 불만이 점증하고 있으며, 이는 현 샤헤드 정부의 부담인 동시에, 혁명 이전에 대한 향수 촉발로 민주화 과정 자체에 대한 여론 지지 후퇴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2018년 실업률은 15.4%, 특히 정치, 사회적 대졸자 고학력 실업률이 더 큰 문제(30% 육박)

3) 단원들의 안전사고 사례

최근 생계형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범죄의 대상에서 단원 또한 예외는 아니다. 단원들이 겪은 주요 안전사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람이 많은 버스, 르와지, 시장에서 지갑, 핸드폰 분실 등
- 저녁에 흉기 위협 강도 사건
- 주거 침입 및 도난사건
-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4) 안전사고 방지 요령

- 외출 시 귀금속 액세서리 착용 자제
- 비상연락망 체제 유지하기
- 정치, 종교 관련 언급 자제
- 도로교통 안전수칙 준수
- 정기적인 주택 안전 점검
- 사람이 많고 혼잡한 곳에서 소매치기, 신체 접촉 등 조심하기
- 시위 발생 시 현장에 접근하거나 사진 촬영 금지
- 야간 외출 자제, 통금령 발령 시 통금시간 준수하기
- 내륙지방은 여행을 자제, 국내 이동 시 사무실에 사전 보고하기

Tip

기존에는 캐서린 주 알제리 접경지역 및 크사르 길레인 이남 사하라 사막 지역 여행경보 3단계,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지역으로 지정해 왔으나, 2019년 2월 27일자로 캐서린 주 알제리 접경지역 등을 제외하고 여행경보 1단계(여행 유의)로 여행경보 하향 조정하였다.

나. 아플 땐 여기로

혼자 있을 때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기 쉽다. 봉사의 본분을 다하는 데 있어서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제일 기본이 된다. 아플 때 단원들은 튀니스 내 엘 마나르(El Manar)의 의료 단지에 위치한 봉사단 주치의의 개인 병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단원의 임지에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현지에 특별한 풍토병은 부재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여름(6~9월)은 덥고 건조하여 탈수 증세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평소에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또한 강렬한 자외선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는 것이 좋다. 겨울은 우리나라에 비해 온화하나 쌀쌀하며 습한 기후이다. 한국처럼 난방이 갖추어 있지 않아 겨울에 감기에 쉽

게 걸릴 수 있 다. 겨울철에 쇼파지(Chauffage)와 라디에이터 등으로 난방을 하므로 잘때 방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젖은 수건 등을 걸어 놓는 것도 좋다.
항상 구급약품을 구비해 놓고, 추가적인 기본 약품들은 KOICA 사무실에서 수령할 수 있다. 몸이 아프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거나 인터내셔널(International) SOS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 보는 방법 등이 있다. 병원을 이용할 때는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Tip - 병원 분류

- 로피탈(L'hôpital): (국·공립) 종합병원, 라 클리니크(La clinique) : (사립) 종합병원
- 쉐르 제너럴리스트(Chez le généraliste) : (진찰 행위만 하는 의사의) 병원
- 독토르(Docteur) + 이름: 개인병원

1) KOICA 주치의

단원들의 예방접종, 1차 건강검진 등 전반적인 의료를 담당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로 단원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 의사: Dr. Leïla Ennabli Makhlouf
- 주소: Residence 〈les jasmins〉 Bloc G 4th floor Rue Habib CHATTI (in front of Clinique El Manar) El Manar 1
- 전화: (216) 71 87 51 41, 휴대폰: (216) 22 60 42 74

2) 종합 병원 폴리클리니크 엘 마나르(Polyclinique El Manar)

대형 종합병원으로 단원 건강검진시 이용하는 종합병원이다. 이용하는 환자 수가 많으므로 개별 이용시에는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 주소: Rue Habib Echetti- El Manar 2092
- 전화: 71 885 000

한니발 종합병원 (Hannibal International Clinic)
International SOS 요청 시 연결해주는 종합병원으로 다양한 과가 있다.
보통 예약을 받지 않지만, 과에 따라서 예약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알아보고 가야 한다.
- 주소: Cité les pins, Les Berges Du Lac II, Tunis
- 전화: (216) 71 137 400

3) 분야별 개인 병원 (사무소 추천)

A. 치과(Dentiste)
- 주소: Centre Commercial Jamil Appt.D-3 Bloc D Menzah 6-2091
- 전화: 71 754 014, 71 750 425

B. 정형외과(Orthopédiste)
- 병원: MAGHREB Medial
- 주소: Rue du Roi AbdelAziz Al Saoud-Manar 3
- 전화: 70 861 065C. 외과(Chirurgien)

C. 외과(Chirurgien)
- 의사: Docteur Karim Ben Youssef
- 주소: Boulevard 7 Novembre 1987-1004 Tunis
- 전화: 71 84 13 91

D. 피부과(Dermatologiste)
- 의사: Docteur Nabil HACHICH
- 주소: Résidence les jasmins-Bat. H.6 Rue 7151 El Manar 1
- 전화: 71 88 99 11

E. 안과(Ophtalmologiste)
- 의사: Docteur Raoudha BRAHIM TALBI
- 주소: Résidence Les Jasmins Bat B. 2009 El Manar 1

4) 긴급 상황시

A. 응급병원 : 190

B. 긴급구조 SOS(SOS Remorquage 24/24) : 71 801 211

C. 알로 엠뷸런스(Allo Ambulance / Transport Médicalisé)
- 주소: 15, rue Ahmed Amine, 1005 El Omrane, Tunis
- 전화: 71 780 000 / 71 781 000
- 튀니지 앰뷸런스(Tunisie Ambulance / Transport Médicalisé): 71 725





❶ 사립 종합병원의 모습 ❷ 약국

다.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연락처

1) KOICA 현지 사무소

- 전화: 71 195 150/ 71 195 160
- 주소: Immeuble Premium, 1er etage B1-3 et 1-4, Av. De L'euro, Les Berge du Lac 2, Tunis 1053, Tunisie

2) 경찰서: 통합 197

주요 지역별 경찰서 전화번호

튀니스(Tunis)	71 960 448	스팍스(Sfax)	74 670 429
	71 963 512	가프사(Gafsa)	76 217 608
	71 960 660	가베스(Gabés)	75 294 529
비저트(Bizerte)	72 432 950	나불(Nabeul)	72 285 479
수스(Sousse)	73 369 090		72 271 306
	73 232 611	모나스티르 (Monastir)	73 232 730

3) 교통

A. 항공

카르타지 공항(Tunis): 71 754 000, 71 755 000

하비브 부르기바 공항(Monastir): 73 520 000

B. 시외버스 터미널 : 목적지의 방향에 따라 두 곳으로 나뉨

Gare routière Tunis Sud(Bab El Fellah): 71 399 391, 71 399 440

Gare routière Nord(Bab Saadoun): 71 562 532, 71 562 299

C. 튀니스 기차역(La gare de Tunis)
71 345 511, 71 254 440

D. 콜택시 (알로 택시)
71 783 311

4) 주요 관공서 및 기타

- 소방서: 198
- 튀니지텔레콤: 71 80 17 17
- 전기/가스 공사: STEG (71 792 500)
- 수도 공사: SONEDE (71 512 000)
- 날씨: 71 773 400
- 전화번호 안내: 1200(사람), 1210(회사)
- 시간 안내: 1299(아랍어), 1291(프랑스어)

2. 여가시간 백배 활용하기

가. 배워보자 현지어

튀니지 공식 언어는 아랍어이다. 튀니지의 아랍어는 튀니지어라고 부를 정도로 정통 표준 아랍어와는 상당히 다르다. 또 프랑스어가 공용어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프랑스어사 용국기구(프랑코포니)의 정회원국이다. 따라서 단원들은 현지적응기간 동안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인이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 언어를 선택할 때는 파견되는 기관의 성격, 같이 일하게 될 동료나 학생, 개인의 기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부르기바 스쿨(Institut Bourguiba des Langues Vivantes)

흔히 부르기바 스쿨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공립 공식적인 아랍어 교육기관이다. 아랍어 이외에도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강좌가 있다. 나 불(Nabeul), 수스(Sousse), 스팍스(Sfax) 등 지방도시에도 부르기바 스쿨 분교가 있다. 분교의 경우 영어와 프랑스어, 아랍어 위주로 강좌 수는 적다. 일반

적으로 9월 초순에 접수 후 중순에 개강한다. 일반 학교와 같이 1년을 학기로 9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중 간/기말 시험이 있다. 주 4시간 수업기준의 등록비는 일 년에 120디나르(2018년 기 준)이다.

- 주소: 47 Avenue de la liberté, 1002 Tunis
- 전화번호: (216) 71 83 24 18, (216) 71 83 29 23
- 웹사이트: http://www.iblv.rnu.tn

Tip

- 로피탈(L'hôpital): (국·공립) 종합병원, 라 클리니크(La clinique) : (사립) 종합병원
- 쉐르 제너럴리스트(Chez le généraliste) : (진찰 행위만 하는 의사의) 병원
- 독토르(Docteur) + 이름: 개인병원

2) IFC: Institut Français de Coopération



이곳에서는 프랑스어 수업, DELF/DALF/TCF 시험 및 각종 프랑스 관련 문화행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프랑스어 수업은 입문반부터 시작되지만 시험을 통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참고로 DELF 시험은 매년 1월과 6월에 있으며 시험 한 달 전에 접수를 받는다. 시험 접수를 할 때는 신분증(여권, 체류증)과 응시료를 준비하면 된다. 말하기 시험을 볼때는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수업료는 40시간에 180디나르(2011년 5월 기준)이다.

- 주소: 87, avenue de la liberté, BP 180, 1080 Tunis
- 전화번호: (216) 71 105 262 / 286
- 웹사이트: www.ifctunisie.org

3) 영어 관련 교육기관

아랍어, 프랑스어 이외 영어를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 다음의 기관을 소개한다.
영국 문화원(British Council) 이곳은 영국 외무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으로 교육, 문화 분야의 대외 협력을 위한 영국정부의 공식기관이다. 어학 센터, IELTS 시험 운영 등의 서비스 및 문화예술, 영어교육 및 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주소: 87 Avenue Mohamed V 1002 Tunis Belvédère
- 전화번호: (216) 71 84 85 88 이다.
- 웹사이트: http://www.britishcouncil.org/fr/tunisia-english-learn.htm

A. 아미드이스트(Amideast)



중동지역 및 북아프리카 교육 개발관련 영리단체인 아미드이스트는 토플iBT(TOEFL iBT), GRE, GMAT 등을 운영 관리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영어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튀 니스와 수스에서 운영되고 있다.

- 튀니스 주소: 22, Rue El Amine Al Abbassi, Cite Jardins, 1002 Tunis
- 수스 주소: Route de la Plage, Immeuble VIP, Menchia - 4011 Hammam Sousse
- 웹사이트 : http://www.amideast.org/tunisia

4) 과외

수도나 지방 대도시 이외에는 학원 수강이 어렵다. 그래서 지방 단원들은 어학 공부를 할 때 주로 과외를 이용한다. 실력 있고 발음 좋은 선생님을 구하는 것과 적절한 과외비 책정이 관건이다. 과외 선생님으로 현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님을 추천한다. 기관 동료나 현지 친구의 도움을 받는 방법과 기존 선배 단원의 과외 선생님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현지 신문 광고란에 구하는 광고를 내서 구하기도 한다. 과외를 하면서 여러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적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과외비를 선불하는 경우 과외비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후불 또는 당일 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 오늘은 뭘 하지?

1) 맛집

튀니지에는 주로 현지 전통음식, 이탈리아, 프랑스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 많다. 그 밖에 아시아 음식(태국, 인도, 일본, 중국), 아랍 음식(레바논, 모로코), 터키, 유대 음식 등이 있다. 다른 대도시에도 좋은 식당이 많지만 단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튀니스 중심으로 레스토랑들을 소개한다. 소개할 곳은 단원들이 자주 찾거나 특별한 것을 먹고 싶을 때 방문하면 좋은 곳들 위주로 자료를 취합해 보았다. 맛에 대한 기준은 개인의 취향이고 소개하는 곳도 단원들끼리 호불호가 갈리는 곳이므로 직접 먹어보고 평가 해보길 바란다. 그럼 이제 주요지역 맛 집으로 출발해보자.

Tip - 맛집 관련 웹사이트

- 맛집 찾기(튀니스 중심) : http://www.resto-tunisie.com
- 맛집 찾기 : http://www.touristic-guide.com

A. 상트르 빌 (Centre ville, Avenue Habib Bourguiba)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리. 대부분의 도시에 하비브 부르기바 거리가 있다. 평행으로 심어진 가로수와 줄지어 있는 노천카페들이 이 거리의 아름다운 외관을 더해주고 있다. 이 거리에는 주류를 판매하는 바가 많다.

르 그랑 카페 뒤 테아트르 (Le Grand Café du Théâtre)	카페 레스토랑(Café Restaurant) 분위기 : 외국인도 많고 활기참. 위치 : Avenue Habib Bourguiba, Tunis 1001, Tunisie
자메이카 바 (Jamaica Bar)	바(Bar) 분위기 : 튀니지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위치 : 하나호텔(El Hana International Hotel) 10층 웹사이트 : http://www.elhana-international.com

B. 모하메드 상크 거리(Avenue Mohamed Ⅴ)

하비브 부르기바 거리의 시계탑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큰 대로이다. 이 길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 튀니지 중앙은행, 동전 박물관, ABC 은행, 영국 문화원 등 주요 시설들이 있다.

카푸치노 (Cappuccino)	카페테리아 튀니지앙(Cafétéria tunisienne). 분위기 : 혼자 식사하기 좋음. 회사원, 학생들이 많음 위치 : Maison Blanche 호텔 옆 가격 : 점심 식사 메뉴 - 6.9디나르







❶ 르 마타도르 ❷ 파크레딘 ❸ 다빈치 ❹ SFC

C. 멘자(Menzah)

튀니스 북쪽에 위치에 있는 멘자 지역은 대표적인 주거 지역이다. 중상류층의 거주 지역으로 곳곳에 좋은 식당과 고급 의류 매장들이 있다.

르 마타도르 **(Le Matador)**	이탈리아 음식점 화덕에 직접 구운 피자를 맛볼 수 있다. 분위기 : Romantique, Intime et Familiale 주소 : 18,Av Ahmed Tlili, El Menzah V 1인 평균가 : 20 디나르
파크레딘 **(Fakhreddine)**	레바논 음식점 분위기 : 가족 단위 손님이 많음. 위치 : 4, av. de la Liberté1004, Menzah, TUNIS 전화 : 71 75 24 58

D. 엔 나사르(Ennasr)

현대식 주상복합 아파트, 고급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는 곳이며 밤이 되면 젊은이들이 모여든다. 특히 축구경기가 있는 날은 시끄럽고 혼잡하다. 튀니스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 접근성은 떨어진다.

SFC	르 피처리어(Le Pizzeria) - 패스트 푸드 햄버거, 프라이드 치킨판매 분위기 : 젊은 층과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함.
오리가미 **(Origami)**	일식집 분위기 : Branchée, Intime et Romantique 주소 : Av Hedi Nouira Nasr 1인 평균가 : 30 디나르(TND)
다빈치 **(Da vinci)**	이탈리아, 지중해 요리 분위기 : Branchée, Chic et Jeune 주소 : residence essalem, Av Hedi Nouira 1인 평균가 : 35 디나르(TND)

E. 락(Les Berges du Lac)

락 드 튀니스(Lac de Tunis)는 튀니스와 지중해만 사이에 있는 자연호수이다. 그 호수를 따라 고급 레스토랑과 식당 그리고 놀이동산, 볼링장 등 편의시설들이 있다. 주류는 판매하지 않는다.

덤 푸쿳 **(DUM PUKHT)**	인도 음식점 분위기 : Romantique, Intime et Familiale 주소 : 3, Av. du Boulevard 1053 Les Berges du Lac 1인 평균가 : 20 디나르

F. 라 마르사(La marsa)

튀니스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해안 마을이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해 있는 지역으로 감마르트(Gammarth)지역과 함께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일식당(Klotori)과 일본 식료품점(Feinkost, 주소: 17 Ave. Ali Belahouane La Marsa, 전화: 71 77 66 99)이 있어 아시아 식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파티오 잘레오 **(Patio Jaleo)**	스페인, 해산물 음식점 분위기 : Animée, Branchée et Conviviale 주소 : 5, rue Omar Ibn Rabia - Marsa Plage 1인 평균가 : 20 디나르

G. 나불 (Nabeul)

튀니스에서 1시간이면 찾을 수 있는 지역인 나불은 감귤류 농장과 향료용 꽃밭이 있다. 또 도자기, 모직물도 유명하다. 나불(Nabeul)-하마멧(Hammamet)-수스(Sousse) 로 이어지는 지중해 관광지역이다. 조금은 멀지만 단원들 사이에 제일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다.

르 슬로베니아 (Le Slovenia)	슬로베니아 음식점 돼지고기 음식과 맥주 판매 위치 : Hôtel les jasmains 8000 Nabeul 전화 : 72 285 343 웹사이트 : www.hotellesjasmins.com

2) 유원지

A.다다 랜드(Dah Dah Happy Land Parc)

튀니스 락(Les Berges du Lac)에 위치해 있다. 실외에는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으며 실내에는 각종 오락기계들이 있다. 1년을 기준으로, 더운 라마단 기간 저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겨울에는 한산하다. 10디나르를 내면 12장의 쿠폰책을 구입할 수 있다. 각각 놀이기구 입구 쪽에 몇장의 쿠폰을 사용하는지 관련 간판을 볼 수 있다. 입장할 때 필요한 쿠폰 개수만큼 떼어 직원에게 주면 된다.

- 개관시간 : 월 ~ 금 pm 1:00 ~ 8:00 / 토요일 pm 1:00 ~ 10:00
- 일요일 am 11:00 ~ pm 09:00

B. 카르타지 랜드(Carthage Land)



야스민 하마멧 (Yasmine Hammamet)에 위치해 있는 테마 파크로 아기자기한 놀이시설이 꾸며져 있다. 놀이기구는 많지 않지만 각종 퍼레이드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름에는 물놀이 시설을 개장한다. 성인의 경우 자유이용권 가격은 22디나르이다.

- 웹사이트 : www.carthageland.com

Tip

공원정보 관련 웹사이트 : http://www.cap-tunisia.com/HTML/dyna-parcs.htm

C. 동물원(Parc zoologique)



튀니스 벨베데르 공원(Parc du Belvédère) 안에 있는 동물원은 매우 저렴한 가격이지만 다양한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다. 튀니스 중심부에 있어서 접근성 역시 상당히 좋은 편이다.

또한 하마멧과 수스 사이 부피샤(Bouficha)에 위치한 프리기아(Friguia Park)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동물원이다. 넓은 부지와 많은 동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특색을 살린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다. 가는 방법은 르와지, 버스, 기차가 있지만 기차 이외에 다른 대중교통은 상당히 번거롭다. 공원 안에 식 당과 간식 코너가 있다. 하지만 비수기에는 운영하지 않고 가격도 비싸므로 간단한 간식거리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여름에는 9시부터 19시까지, 겨울에는 9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며 여름시즌에는 월요일에 문을 닫는다. 입장료는 성인기준 6.5디나르(TND)이다.

- 개관시간 : am 9:00 ~ pm 7:00 (여름 / 월 휴무) | am 9:00 ~ pm 4:00 (겨울) 입장료 : 6.5 디나르(성인)
- 웹사이트 : http://www.friguiapark.com

3) 그 밖의 문화 시설

A. 박물관

엘 젬, 카르타지, 켈리비아 등 유적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박물관이 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박물관에서 로마, 카르타고 유물이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다. 박물관 입장료는 대부분 유적지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다. 박물관을 갈때에는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확인하고 가야한다.

Tip

- 바르도 국립 박물관: http://www.informatique-tunisie.com/museebardo/index.htm
- 기타 박물관 안내: http://www.patrimoinedetunisie.com.tn/fr/musees.htm

장소	관람 시간	전화번호	관람 포인트
바르도 국립 박물관 (Musée national du Bardo)	(11~4월) 9:30 ~16:30 (5~10월) 9:00~17:00	1 513 650	최고이자 최대 규모의 로마 모자이크 소장.
카르타지 국립 박물관 (Musée National de Carthage)	08:30~17:00 *계절에 따라 유동적임	71 73 00 36	로마와 카르타고 유물들 전시.
엘젬 박물관 (Musée d'El Jem)	08:00~17:00 *계절에 따라 유동적임		도자기, 석고상, 모자이크 등.
비제르트 유티크 (Utique, Bizerte)	8:30~17:30		줄리어스 시저 무덤과 로마의 항구가 잘 보존되어있음.
나불 박물관 (Musée de Nabeul)	9:00~16:00 (월요일 휴관)	72 28 55 09	카르타고의 동상, 모자이크 등 전시

B. 국립 극장 (Théâtre Municipal)
하비브 부르기바 거리에 있는 극장으로 총 1,350개의 좌석을 갖추고 있다. 고풍스러운 디자인과 실내 장식은 국립극장의 멋을 한층 더해준다. 자세한 공연 일정은 웹사이트와 건물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웹사이트 : http://www.theatremunicipal-tunis.gov.tn

C. 튀니지 국립 도서관
국립도서관(Bd. 9 avril 1938 R.P. 1008 Tunis)에는 회의장, 실험실, 전시 갤러리 등이 갖추어져 있다. 약 2만권의 서적, 5천개의 지도, 2만 편 이상의 학술 논문, 만오천개의 아랍 정기간행물 등을 소장하고 있다. 국립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며 등록증은 매년 갱신해야한다. 등록증을 만들려면 여권사본, 경력증명서(하는 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1장, 등록비 5디나르가 필요하다.(2011년 5월 기준)
- 웹사이트: http://www.bibliotheque.nat.tn



❶ 국립극장 ❷ 국립 도서관

D. 볼링장 (Golden Bowling)
단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볼링장으로 락(Lac)에 위치한다.
- 웹사이트: http://www.goldenbowling.com

E. 영화관
현지의 영화관은 시설이 낙후하고 최신 영화는 몇 달이 지난 후에나 볼 수 있다 또한 상영하는 영화는 대부분 더빙된 아랍어 영화로 이해하기 어렵다. 감마르트 (Gammarth) 지역에 복합영화관이 있지만, 거리상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튀니스에서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영화관은 하비브 부르기바 거리에 있는 아프리카 극장이다. 이 영화관은 아프리카 호텔 뒤편에 있다.

다. 튀니지는 축제 중

현지에는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수준 높은 공연과 저렴한 관람료는 축제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1) 음악 축제

- 축제관련 웹사이트: http://www.cap-tunisie.com/html/festival.htm

행사명	장소	주제	일정
재즈 카르타지 Jazz àCarthage	카르타지	재즈	4월
국제 재즈 페스티벌 Festival International de Jazz	타바르카	재즈	6, 7월

국제 교향악 축제 Festival International de la musique symphonique	엘젬 콜로세움	클래식 음악	8월
국제 하마멧 축제 Festival International de Hammamet	하마멧 원형극장	음악, 춤, 연극	8월
전통음악 축제 Festival de la musique liturgique	네프타	전통음악	10월

2) 기타 국제 축제

행사명	장소	주제	일정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Festival du film pour l'enfance et la jeunesse	수스	청소년 영화	3월
Festival International des Ksours Sahariens	타타윈	대중 예술	4월
국제 아마추어 영화제 Festival International du Film Non Professionnel	켈리비아	아마추어 영화제	7월
Festival International du Malouf et de Musique Arabe et Traditionnelle	테스투르	음악	7월
Festival International de Carthage	카르타지 원형극장	음악, 연극, 영화 조형예술	7, 8월
Festival International des Arts Plastiques	마흐레스	조형예술	7, 8월
Festival International des Oa-sis	토주르	민속 공연 및 전시	11월
사막 축제 Festival International du Sahara	토주르	민속 공연 및 전시	11월







축제 공연 모습 크람 전시장에서의 수공예품 박람회의 모습

3) 크람(Kram) 전시회장

전시회장에는 연중 다양한 주제의 전시회와 박람회가 열린다. 전시회기간에는 시장이나 매장 물건보다 값도 싸고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 웹사이트 크람 엑스포(Kram EXPO) : http://www.fkram.com.tn

3.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가. 알고 사자! 특산품

1)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물건

각 관광도시의 상점과 메디나(Media, 구시가)에는 카펫, 이슬람 문양의 도자기, 마리 오네트인형, 낙타인형, 열쇠고리, 사막장미라고 불리는 석화(Gypsum, desert rose), 모자이크 타일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단원들은 주로 올리브비누, 올리브유, 올리브나무 조리도구, 포도주, 카펫, 대추야자 등을 선물한다. 올리브, 포도, 대추야자 등 원재료들은 좋지만 그 재료들을 살려 고급제품으로 만드는 가공기술이 부족해 튀니지 자체 브랜드는 전무한 편이다. 좋은 제품을 고르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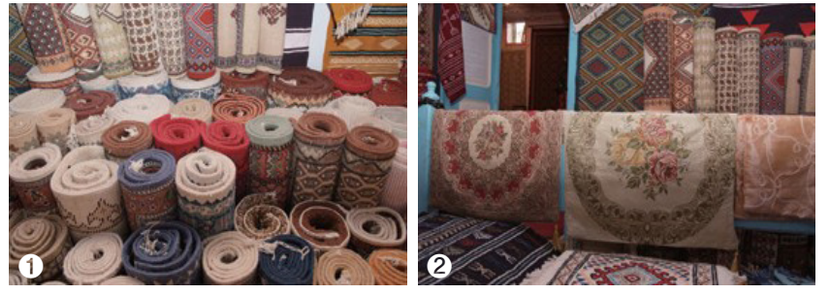
❶ 올리브나무 조리도구 ❷ 모자이크 타일 ❸ 가죽으로 만든 가방 ❹ 마리오네트 인형

A 올리브나무 조리도구
올리브나무 조리도구의 장점은 질감이 부드럽고 변색되지 않으며 내구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구입 할 때에는 제품에 상처나 옹이가 없는 것을 골라야 한다. 물기가 이곳 을 통해 흡수되면 제품이 변형되기 쉽다. 현재 한국에서 파는 수입제품들은 튀니지 제품 가격보다 4~5배 비싸다. 가격은 크기에 따라 다르며 보통 도마의 경우 4~15디나르, 주걱은 3~5디나르정도 한다.

B. 올리브유
올리브유의 등급에는 버진 올리브유(Virgin Olive Oil), 정제 올리브유 (Refined Olive Oil), 올리브유(Olive Oil), 올리브 포마스유(Olive-Pomace Oil) 등으로 나뉜다. 냄새를 맡았을 때 올리브 특유의 향기가 나는 것이 좋다. 500ml 버진 올리브유 가격은 보통 10디나르 안팎이다.

C. 올리브 비누
한국에서는 올리브 성분만 조금 넣고 올리브 비누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올리브 오일만 넣어 만든 비누를 카스틸 비누(Castile Soap)라고 한다. 카스틸 비누는 거품이 잘나지 않고 무르다는 약점이 있지만 순하고 보습력이 높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의 70%정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마르세유 비누(Marseille soap)라고 한다. 튀니지에는 마르세유라고 표기되어 있는 비누를 쉽게 볼 수 있다. 올리브 비누를 살 때에는 용도에 따라 올리브 오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마트에서 파는 마르세유 비누는 2디나르 내외이고 전문 매장에서 구입할 경우 4~7디나르정도 한다.

D. 카펫
현지인들은 겨울철 난방효과와 실내 장식 등 다양한 용도로 카펫을 구입한다. 좋은 카펫을 고르기 위해서는 카펫의 밀도가 조밀한지 살펴야 한다. 엄지손가락으로 표면을 눌렀을 때 단단한 느낌이 나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밀도가 높으면 복원력이 좋아서 카펫위에 가구를 올려놓았을 때 눌린 자국이 오래가지 않는다. 같은 사이즈의 카펫이라면 중량이 많이 나갈수록 좋다. 가격은 기도용 작은 카펫 기준 40디나르 내외이다.



❶ 기도 할 때 사용하는 작은 카펫 ❷난방과 장식을 위한 대형 카펫

Tip

정부기관인 국립 전통 공예청(Office National de l'Artisanat)에서 전통공예 센터를 만들어 놓았다. 이곳에서 제품을 구 입하면 관광지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E. 포도주
튀니지산 포도주는 싸고 질이 좋다. 레드 와인으로 오 모르낙(Haut Mornag), 마곤(Magon), 시디 사드(Sidi Saad), 로제 와인으로 그리 드 튀니지(Gris de Tunisie), 시디 라이스(Sidi Rais), 코우디아트(Koudiat), 화이트 와인으로 티바(Thibar), 뮈스카 드 켈리바(Muscat de Kelibia), 블랑 드 블랑(Blanc de Blanc) 등이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셀리안 카리그난 카라트라시 2004(Selian Carignan Calatrasi 2004, 레드 와인), 도메인 클리피 샤르도네 2004(Domaine Clipea Chardonnay 2009, 화이트 와인), 샤토 드 모르낙 만다곤 2008(Chateau de Mornag Mandagon 2008, 레드 와인)이 좋은 평점을 받고 있다. 마트에서 유통되는 포도주의 가격은 4~25디나르 까지 다양하다.

F. 대추야자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대추야자는 변비 예방, 항 노화, 자양강장에 탁월한 완전식품이다. 비타민과 영양분이 풍부하여 사막에서는 중요한 식량자원이 되어 왔다. 대추야자전문점(Deyma)에는 호두나 아몬드를 넣거나 초콜릿, 꿀 등을 입혀 팔기도 한다. 이 곳에서 파는 제품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마트나 시장이 좋다. 마트나 시장에서는 저렴

한 가격의 대추야자를 구입 할 수 있다. 대추야자는 한국에서도 판매되고 있으나 튀니지 가격보다 2~3배 비싸다. 500g 기준가격은 마트는 10디나르, 전문 매장의 경우 20디나르 정도한다.

2) 지역별 특산품

튀니지 생활에 유용한 물품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튀니지는 국토 면적의 27.8%가 농경지이고 36.3%가 목초지, 5.4%가 삼림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북쪽 내륙은 초원과 코르크 숲, 남쪽 사막 지역은 오아시스에 넓은 야자수 숲이 형성되어 있다. 북부에는 밀, 튀니스 부근에는 포도가 많이 재배된다. 또한 캡봉(Cap Bon) 반도에는 과일과 채소가 재배되며 남부 연해 지방에는 올리브가 많이 생산된다. 주요 농산물은 올리브, 토마토, 감귤류의 과일, 사탕무, 대추야자, 아몬드, 유제품 등이다. 수산업은 켈리비아 (Kélibia), 수스(Sousse), 스팍스(Sfax)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각 도시별로 구매하거나 먹어볼 만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나불 (Nabeul) : 도자기
- 카이루안(Kairouan) : 카펫, 마카루쓰(Makroudh-튀니지 전통과자)
- 투저흐(Tozeur) : 대추야자
- 베자(Béja) : 사탕무, 보리
- 시디 부 지드(Sidi Bou zid) : 양(고기)
- 캡봉(Cap Bon) : 오렌지, 고추 등 각종 과일과 야채

나. 재래시장 및 쇼핑몰 사전체험

1) 재래시장

튀니지 유통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재래시장은 전국 30만 개 이상 형성되어 있다. 튀니지 사람들은 대형 쇼핑몰보다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한다. 튀니지 재래시장에 대해 '없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다'고 하기도 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진열·판매되고 있지만 막상 구입하려면 맘에 드는 제품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제 튀니지 생활에 필수 코스인 재래시장 알아보도록 하자.

A. 튀니스 메디나 (La Medina)[17]

메디나는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형성된 주거지역이었는데 현재는 시장과 주거지역이 공존하며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재래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다. 메디나 안에 형성된 재래시장은 미로처럼 좁은 골목에 넓고 복잡하게 퍼져 있다. 기념품을 파는 골목, 의류 및 원단을 파는 골목, 비누, 향수 등을 판매하는 골목 등 판매 종류별로 지역이 구분되어 있다.

17) 아랍어로 도시를 뜻함. 근래에 건설되는 신시가에 대해 구시가를 메디나로 부름

B. 재래시장과 쑥(Souks)



재래시장의 전경

튀니지의 재래시장은 상설시장과 쑥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상설시장은 튀니스 메디나 옆에 위치한 중앙시장이다. 신선하고 다양한 농수산물은 물론이고,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별 계절별 산물까지 판매되는 곳이다. 한국의 5일장과 유사한 쑥은 각 지역마다 커다란 규모로 열리며, 요일별로 열리는 날이 다르다. 재래시장은 오전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며, 2~3시만 넘어도 상인들은 폐장을 준비하므로 오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품목은 과일, 야채, 가구, 의류, 신발, 속옷, 생활용품, 중고제품부터 신제품까지 다양하 다. 가격 또한 품목별, 제품 상태별로 천차만별이다.

2) 대형 마트

최근 몇 년 사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살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있다. 또한 배달과 교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전제품의 경우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 프랑스에 기반을 둔 업체들이며 대체적인 서비스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물건 교환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영수증을 보관하여 두는 것이 좋다.

A. 제앙 (Géant)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프랑스에서 두 번째,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대형 슈퍼마켓이다. 마켓과 망고, 베네통, 게스 등 각종 의류 매장과 음식점, 화장품

매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켓에서 태국·일본 식품이나 양념, 돼지고기, 주류 등을 구입할 수 있다. 튀니지 외곽에 있어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잘 갖추어진 편의시설들이 있어 좋다

- 웹사이트: http://www.geant.tn

B. 까르푸 (Carref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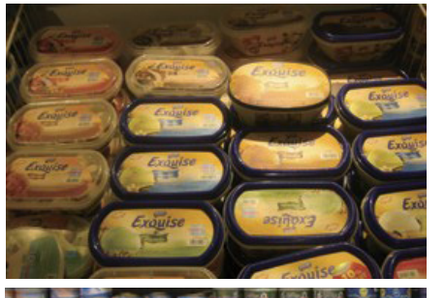
프랑스어로 교차로를 의미하며 국제적인 대형마트 체인점이다. 마켓, 각종 의류점, 복합 스포츠 매장, 일반음식점, 아시아 식당 등이 있다. 마켓에서는 돼지고기와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판매 품목들은 제앙과 비슷하다.

- 웹사이트: www.carrefourtunisie.com

3) 중소형 마트












마트에는 농산물부터 가공음식까지 다양한 식재료와, 유명 다국적 기업들의 생활용품 등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주거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산품의 경우 소매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종류를 한 번에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중소형 마트에는 샹피옹(Champion), 까르푸 마켓(Carrefour Market), 모노프리(Monoprix), 마가장 제네랄 (Magazin general), 카디(Cady) 등이 있다. 조금 다른 크기와 물품들을 판매하지만 주거 단지마다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보통 샹피옹과 까 르푸 마켓의 1층에는 과일, 야채, 육류 등의 식료품들, 식료품 관련 공산품, 생활용품이 위치해 있다. 2층에는 전자 제품, 가구, 각종 주방 용품 등이 있다. 모노프리는 넓은 단 층 매장인 경우가 많다. 식료품, 공산품, 화장품, 책, 음반 등 판매한다. 단원들은 주로 이곳에서 브리타 정수기 및 필터, 이탈리아 리소토 쌀, 태국 양념 등을 구입한다. 마가 장 제네날은 매장마다 제품 구성에 차이가 있다. 규모가 큰 곳에서는 전자 제품, 과일, 야채, 육류 등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지만, 작은 매장에서는 육류와 야채를 판매하지 않는 매장도 있다.

4) 쇼핑센터

A. 튀니지아몰(Tunisia Mall)

대사관과 코이카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락(LAC 2)에 위치한 가장 최근에 오픈한 쇼핑몰로, 자라, 마시모두띠 등 의류매장과 푸드코트가 있다.

B. 센트럴 파크(Central Park)

하비브 부르기바 거리의 뒤편에 있다. 지하에는 모노프리가 위치해 있고 1층은 망고나 제니퍼 등 의류 매장이 있다. 2층에는 신발 매장 및 푸드코트가 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 점심시간에 푸드코트는 주변 회사원과 학생들로 붐빈다.





❶ 센트럴 파크 ❷ 팔마리엄

C. 팔마리엄 (Palmarium)
튀니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쇼핑센터로 하비브 부르기바 거리에 있는 국립극장과 튀니스 기차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총 5층으로 되어 있으며 약 230개 매장이 입점해 있다.

5) 기타 제품별 전문매장 목록

A. 가전제품
바탐(Batam), 일렉트로나블리(Electronabli), 에츠 벵 아예드(Ets Ben Ayed), 에츠 알라니(Ets Allani), 다티(Darty) 등

B. 실내가구
메블라텍스(Meublatex)

C. 멀티미디어 및 정보기기
코넥시옹(Connexion), MIB, AI 등

D. 향수 및 화장품
포인트 엠(Point M, 프랑스), 파탈레스(Fatales, 튀니지)

E. 의류
a) 아라미스(Aramys) 그룹 : 블루 아일랜드(Blue island), 사지오(Sazio), 바바로시(Barbarossi), C&N 디스트리뷰션(C&N Distribution, Dixit)

b) 마이에 클럽(Maille Club) : 마브룩(Mabrouk), 폴 앤 샤크(Paul & Shark), 스퀘어5(Square 5), 막스마라(MaxMara), 자라(ZARA), 망고 (Mango), 베네통(Benetton) 등

D. 신발
멀티 브랜드숍인 시티 스포츠(City sport), 슈즈 센터(Shoes Centre) 등. 단일 브랜드 매장으로는 알도(ALDO), 제옥스(Geox) 등

4. 나도 이젠 요리사!

가. 현지음식 따라잡기

1) 전통음식

A. 쿠스쿠스(Couscous)
북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전통요리이다. 곡물 가루(주로 밀가루)를 말려 좁쌀 모양으로 만든 빠뜨(pâte)에 토마토소스, 양파, 감자, 고추 등으로 양념을 하고 고기(주로 양 고기, 닭고기, 암소고기, 생선 등) 등을 넣어 완성한다.

B. 브릭(Brik)
얼핏 보면 군만두를 연상케 하는 튀김음식이다. 넓은 피에 달걀, 치즈, 참치, 야채 등 을 넣어 만든다. 평소에 부담 없이 즐기기에도 좋으며 라마단 기간 동안 빼놓지 않고 먹어야 하는 전통음식이다.

C. 아시닷 구구 (Asidet zgougou)
예언자 무함마드(Mohammed)의 생일에 먹는 음식으로 푸딩과 비슷하다.

D. 양고기
이슬람사회에서 제일 많이 먹는 육류이다. 구워먹는 것은 물론 많은 음식에 재료로 쓰인다. 특히, 라마단 두 번째 종료일에는 이슬람 전통에 따라 집집마다 양을 잡고 양고기를 먹으며 운세를 점치는 풍습이 있다





❶ 프리카세(Fricasé)와 브릭(Brik, 반달 모양) ❷ 튀니지 전통 음식들: 빵, 쿠스쿠스(Couscous), 해물오자(Ojja aux fruits de mer) 등

2) 평소 먹을거리

A. 오자 (Ojjaa)
기본적으로 토마토소스와 달걀이 들어가고 현지 양념(하리사)과 올리브유로 조리하며 메르게즈(merguez), 해물 등을 넣어 만든다.

B.라블레비 (Lablebi)
우리나라 죽과 비슷한 음식으로 잘게 찢은 빵, 달걀, 하리사 등을 넣어 걸쭉하게 만든다.

C. 마카루나 (Makarouna)
튀니지 스파게티이다. 보통 하리사를 넣은 토마토소스 스파게티 위에 닭, 소고기 등의 육류를 곁들어 먹는다.

D. 카프 테지 (Kafteji)
고추, 감자, 호박, 토마토 등을 잘게 썰어 만든 음식이다.

E. 슬래타 (Slata)
튀니지 샐러드. 하리사, 올리브기름, 토마토, 고추, 양파, 오이, 참치를 넣어 만든다. 빵을 이 슬래타에 찍어 먹는다. 튀니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다.

나. 한국음식이 그리울 때

튀니지에 한국 식품은 전무하기 때문에 많은 단원들이 필요한 한국 식품을 우편 화물로 받는 경우가 많다. 간혹 국외 여행 때 한국 식품점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 모두 한계가 있고 소요금액 역시 만만치 않다. 현지에서 자체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

1) 현지 양념 재료 구입하기

A. 간장(Soy Sauce)
대형마트나 모노프리에서 중국, 태국, 일본 간장을 구입 가능. 맛과 농도가 다르므로 간 조절할 때 유의.

B. 참기름(Sesame Oil)
대형마트나 모노프리에서 구입 가능하며 태국, 일본 참기름이 있음. 향과 농도가 다르며 다른 기름과 섞어 이용하기도 함.

C. 굴 소스(Oyster Sauce)
볶음밥, 육류의 볶음 요리에 이용함.

D. 태국 라면
면으로 부대찌개나 라볶이 할 때 이용함.

E. 피시 소스(Fish Sauce)
김치를 담굴 때 액젓 대신 이용함.

F. 생강(Minced Ginger)
김치 담굴 때 사용함.

G. 깨(Sésame)
재래시장, 대형마트나 모노프리에서 구입 가능함.

H. 전분 가루(amidon)
주로 옥수수 전분가루. 탕수육, 닭튀김 등 만들 때 사용함.

I. 현지 고춧가루
한국 고춧가루와 상이함.

J. 건조 마늘
마늘 대용으로 사용하면 편함. 마트에서 구입 가능.

K. 육수용 조미료

닭, 소고기, 양 육수를 낼 때 사용함. 마트에서 구입 가능.

L. 하리사 아라비(Harissa arbi)

마트 등에서 파는 하리사 아라비는 김치를 담글때 고춧가루 대신 사용가능. 시중에 파는 하리사는 하리사 나불(Harissa Nabeul)과 하리사 아라비(Harissa arbi)가 있음. 보통 하리사 나불은 샤와르마 (Shawarma)와 차파티(Chapatti) 소스에 이용되고, 하리사 아라비는 하리사 나불에 마늘, 허브 등을 추가하여 요리할 때 많이 이용됨.

2) 스파게티 면을 이용한 요리

마트에는 굵기, 모양, 색 등이 다양한 스파게티 면들이 있다. 당면과 국수의 맛과 질감이 똑같지는 않지만 스파게티 면으로 한국의 당면, 국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A. 콩국수




❶ 현지에서 구입한 양념들 ❷ 콩국수

- 준비재료: 스파게티 면, 두유, 야채(오이나 토마토 등), 설탕, 소금
- 조리 방법

1. 국수 굵기와 비슷한 면을 구입하여 삶는다.
2.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두유를 삶아놓은 면에 붓는다.
3. 고명으로 오이나 토마토를 썰어 놓는다.
4. 기호에 맞게 설탕이나 소금을 넣어 먹는다.

B. 잡채

- 준비재료: 스파게티 면,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 야채(시금치, 당근, 양파, 피망 등), 양념(간장, 참기름, 설탕, 후춧가루 등)

- 조리 방법

1. 시금치는 데쳐서 물기를 짠 후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무친다.
2. 스파게티 면을 삶는다.
3. 준비된 야채(당근, 양파, 피망 등)를 가늘게 썬다.
4. 준비된 고기를 야채 크기로 썰고 양념에 재운다.
5. 식용유를 두른 팬에 준비된 야채를 넣고 소금을 뿌려 볶는다.
6. 양념된 고기도 볶는다.
7. 식용유를 두른 팬에 스파게티 면을 볶으면서 간장, 참기름, 설탕을 넣고 볶는다.
8. 볶아 놓은 야채와 돼지고기를 함께 넣고 다시 한 번 볶은 후 깨를 뿌린다.

3) 현지 야채로 한국음식 만들기

A. 양배추 김치




❶ 스파게티 면으로 만든 잡채 ❷ 현지 야채로 담근 김치

- 준비재료 : 양배추(양상추)와 기타 야채 (마늘, 고추, 양파, 당근, 파 등), 양념 (고춧 가루, 피시 소스, 소금, 설탕 등)
- 조리 방법

1. 양배추를 소금에 절인다.
2. 김치에 넣을 야채(마늘, 고추, 양파, 당근, 파 등)를 준비한다.
3. 절인 양배추에 준비된 야채를 섞고 나머지 양념을 넣고 버무린다.

B. 양파 간장 절임

- 준비재료: 양파, 고추, 양념(간장, 식초, 설탕)
- 조리 방법

1. 양파와 매운 고추를 준비한다.

2. 간장, 식초, 물, 설탕(1.5:1.5:1:1) 비율로 소스를 만들고 끓인다.
3. 준비해 놓은 양파와 고추에 끓인 소스를 붓는다.
4. 하루 뒤에 먹는다.

C. 무국
- 준비재료: 무, 육수 물(소고기, 마늘, 파 등), 양념(국 간장, 소금, 후추)
- 조리 방법
1. 무(fijel/아랍어)를 썬다.
2. 육수(소고기, 마늘, 파 등)를 끓인다.
3. 썰어놓은 무를 넣고 거품을 걷어낸다.
4. 국간장, 소금, 후추로 입맛에 맞게 간을 한다.

5. 알아두면 편리한 TIP!

가. 유용한 웹 사이트

1) 튀니지 기관 및 시설

은행	http://www.bt.com.tn
우체국	http://www.poste.tn
문화부	http://www.culture.tn
관광정보	www.tourismtunisia.com
기상청	http://www.meteo.tn
날씨	http://www.tunisiemeteo.com
전화번호 검색	http://www.annuaires.tn

2) 언론

튀니지 영문 뉴스	http://www.tunisiaonlinenews.com
튀니스 헵도 (Tunis Hebdo)	http://www.tunishebdo.com.tn
펨 리얼리티(Femmes et Realitie)	http://www.femmesrealites.com
르 엑스퍼트(L' expert)	http://www.lexpertjournal.com

3) 한국, KOICA 관련

주튀니지 대사관	http://tun.mofat.go.kr
외교부 안전 정보	http://www.0404.go.kr/safety/Safety04_list. jsp
페이스북 튀니지 KOICA	http://www.facebook.com/koicatunisie

4) 국내, 국외 휴가 관련

튀니지 호텔 검색	http://www.tunisie-hotel.com http://www.hotels-en-tunisie.com http://www.elmouradi.com
튀니지 여행	http://www.cap-tunisia.com http://www.magiccenter.com.tn
항공권 검색 및 예약	http://www.edreams.fr http://www.bravofly.fr http://www.tunisair.com http://www.expedia.com
튀니지 페리	http://www.ctn.com.tn

나. 꼬불꼬불 아랍어 기본 회화

튀니지 아랍어는 주변 마그레브 나라들에서는 통한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에서 사용하는 아랍어를 바그레브 아랍어라고 부른다. 이는 표준 아랍어와는 상당히 다르다. 마그레브 아랍어는 지역의 토착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생활 속 튀니지에서는 모국어인 튀니지 아랍어와 공용어인 프랑스어가 함께 사용된다. 따라서 공공기관 및 교통 표지판에는 두 개 언어를 같이 표기하고 있다.



아랍어, 프랑스어로 표기된 교통 표지판

1) 아랍어 알파벳 (Standard Arabic)

다음은 아랍어 알파벳의 영어식 발음 표기이다.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쓴다. 밑에 영어식 발음 표기는 왼쪽에서부터 발음하면 된다.

ح	ج	ث	ت	ب	أ
Ha	Je	The	DDe	Be	E
س	ز	ر	ذ	د	خ
Se	Ze	Ra	Dhe	De	Kha
ع	ظ	ط	ض	ص	ش
A	Dha	DDa	Da	SSa	She
م	ل	ك	ق	ف	غ
Me	Le	KKe	Ga	Fe	Gha
		ي	و	ه	ن
		Iye	Whe	He	Ne

2) 기본 회화 (Tunisian Arabic) 및 어휘들

현지 아랍어 표현과 어휘들이다. 발음을 한글로 표기를 해놓았지만 가르치는 선생님 또는 듣는 사람마다 들리는 소리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두자.

A.기본 회화

만났을 때	'Asslama(아슬레마)
	Assalaamu 'Alaykum 앗살렘무 알레이쿰 (알라의 평화가 당신들 위 에), 대답: Wa Alaykum Assalaamu 알레이쿰 앗살렘 (당신들 위에도 알라의 평화가)
아침 인사	Sbaahil xiir 스베할 히흐
점심 인사	Shaahiya Tayba 쉐이야 타이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저녁 인사	Tisibhala xiir 티스빠라 히흐
헤어질 때	Bisslama 비슬레마
고마울 때	Baraka Laahu Fiik 바라깔라후픽 (축복하시길)
	Y'ayshik 이아이쉭 (생명을 주시길)
	Shokran 쇼크랑 대답: Minghiir Mziya 민휘르 무지야 (천만에요)
먹기 전	Bismila 비스밀레 (알라의 이름으로)
먹고 나서	El Hamdulila 엘 함둘릴레 (알라께 영광을)
좋은 일이 있을 때	Mabrouk 마브룩 (복 받으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Nitsharfu 니차르푸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부 인사	Shahwaalik 샤후웰릭 (어떻게 지내세요?) 대답: Rabaas 레베스, Y'ayshik 이아이쉭(좋아요, 고맙습니다)

택시 탔을 때

~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Brabbi Hizni 브라삐 히즈니 ~
여기서 내려주세요	Yizzi Hnaa 이지 헤네
오른쪽으로 도세요	'Al Limin 두울 알리민
왼쪽으로 도세요	'Al Lisaar 두울 알리사
직진하세요	Imshi Tuul 엠씨 툴
뒤로 돌아가세요	Arija'a Il Taali아르자 일 테일
잔돈 가지세요	Xalli Andik 할리 안딕
잔돈 주세요	A'atiini Il Baagi 아티니 일 베기

B. 기본 어휘

국가, 국적, 인칭

국가	**한국**	**남한**		**중국**	**일본**	**프랑스**
	Kuuriya 쿠리야	Kuuriya Al Januubiya 쿠리야 엘 제누비야		Siin 씬	Yabaan 야반	Fransa 프랑사
국적	**한국사람**		**튀니지사람**		**일본사람**	
	Kuuri(ya) 男 쿠리 / 女 쿠리야		Tuunsi(ya) 투운시/ 투운 씨야		Yabaani(ya) 야바니/ 야바니아	
	이탈리아사람		**이집트사람**		**프랑스사람**	
	Itaali(ya) 이탈리/이탈리야		Masiri(ya) 마시리/마시리야		Fransawi(ya) 프랑사위/프랑사위야	
인칭	**나**	**너**	**그/그녀**	**우리**	**당신**	**그들**
	Ana 에나	Int 인티	Huwa/ Hiya 후야/히야	Ahna 아하나	Intuma 인투마	Huma 후마

숫자, 돈

숫자	**0**	**1**	**2**	**3**	**4**	**5**
	Sfir 스페르	Waahid 와히드	Thiniin 쓰닌	Thlaatha 쓸레싸	Arb'a 아르바	Xamsa 캄사
	6	**7**	**8**	**9**	**10**	
	Sitta 씨타	Sab'a 싸바	Thmanya 쓰마니아	Tis'a 티사	'Ashra 아샤라	
돈	**5밀림**	**10밀림**	**20밀림**	**50밀림**	**100밀림**	**500밀림**
	Duru 두루	'Ashra Millim 아샤라 밀 림	'Aishriin Millim 아쉬린 밀 림	Xamsiin Mil-lim 캄신 밀림	Mya Millim 미애 밀림	Xamsa Mya millim 캄사미애 밀림
	1디나	**5디나**	**10디나**	**20디나**	**30디나**	**50디나**
	Dinaar	Xamsa dina-raat 캄사디나 라트	'Ashra dina-raat 샤라디나 라트	'AishriinDi-naar 아쉬린 디 나르	Thlaathiin Dinaar 쓸레씬 디 나르	XamsiinDi-naar 캄신 디나 르

시간, 분

시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Maadhi-Sa'a 마디 세아	Maadhi-Sa'atiin 마디 세아 틴	Maadhi-Thlaatha 마디 쓸레 싸	Larb'a 라르바	Il Xamsa 일 캄사	Isitta 이씨따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Issab'a 이싸바	Ithmanya 이쓰메니 아	Ittis'a 이티싸	Il'ashra 일라샤라	Lahdaash 라하대쉬	Lathnaash 라쓰나쉬
분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Widraj 위드라지	Wdarjiin 우데르진	Worbo'a 우르보	Warb'a 와르바	Wsamsa 우함싸	Wnoss 우노쓰
	35분	20분전	15분전	10분전	5분전	
	Wsab'a 우싸바	Ghiirarb'a 그힐 라르 바	Ghiirbo'a 그히르보	Ghiir Darjiin 그히르다 르진	Ghiir Draj 그히르드 라지	

동사	**할 수 있다**	**먹다**	**원하다, 좋아하다**	**자다**	**가다**	**말하다 (Say)**
	Najim 내짐	Naakil 내킬	Nhib 엔헵	Norqod 노르꼬드	Nimshi 님씨	Nquul 느꿀
	말하다 (Speak)	**마시다**	**가지다**	**오다**	**그리다**	**연주하다**
	Nithkalim 니깔름	Noshrob 노쉬롭	'Andi 안디	Nji 은지	Nsawir 엔사위르	Na'azif 나지프
	(손 등을) 씻다	**샤워하다**	**일하다**	**사다**	**(택시를) 타다**	**살다**
	Naghsil 낙슬	Ndawish 엔다위쉬	Nixdim 니크듬	Nishri 니시리	Naaxidh 네키드	Noskon 노스콘
	놓다	**준비하다**	**요리하다**	**(TV를) 보다**	**보다**	**듣다**
	Nhot 은홋	Nhadhir 엔하디르	Ntayib 엔타입	Nitfarrij 네 트 파 라지	Nshuuf 엔슈프	Nasma'a 나스마

* 인칭에 따라 동사의 어미가 바뀐다. 예시된 단어들은 모두 1인칭 동사.

다. 공식 휴일 및 방학

1) 공식 휴일

공휴일인 줄 모르고 기관에 갔다가 닫혀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수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현지 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튀니지는 연간 14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A. 1월 1일
신년(Jour de l'An Grégorien)

B. 3월 20일
독립기념일(Anniversaire de l'Indépendance)

C. 4월 9일
순교자의 날(Journée des Martyrs)

D. 5월 1일
노동절(Fête du Travail)

E. 7월 25일
공화국 선포일(Anniversaire de la Procalmation de la République)

F. 8월 13일
여성의 날(Journée de la Femme et de la Famille)

G. 11월 7일
혁명 기념일(Commémoration du 7 Novembre 1987)
*다음은 회교력[18]에 따라 매년 변경된다.
a) 2일: 라마단 종료축일(Aïd El-Fitr)
b) 2일: 라마단 종료축일(Aïd El-Idha)
c) 1일: 회교력 신년(Jour de l'An de l'Hégire)
d) 1일: 무함마드 탄생일(Mouled)

2) 방학

A. 봄 방학
3월 중 2주간

B. 여름 방학
6~8월 말까지 3개월

C. 겨울 방학
12월 중 2주간

3) 관공서 영업시간

A. 오전 08:00~13:00, 오후 14:30~18:00
B. 하계(7~8월) - 오전 08:00~14:00(점심시간 없음)
C. 라마단 기간은 하계와 동일

18) 회교력 또는 이슬람력. 순 태음력으로 태양력보다 일 년이 10일 이상 짧다. 원기는 헤지라, 즉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주했던 해의 아라비아력 연초이다.



제3부



나눔 셋
같이 웃는 즐거운 내일, 튀니지 즐기기

PART I. 튀니지 둘러보기
PART II. 단원 활동 정보



PART I. 튀니지 둘러보기

튀니지 둘러보기

1. 여러 문화의 보고

가) 아는 것이 힘이다! 역사로 알아보는 튀니지

1) 튀니지의 기원과 강성한 해상왕국 - 카르타고(Carthago)

기원전 9세기 튀니지 북동부 튀니스 만에 설립된 도시국가. 디도(Dido) 공주[19]와 얽힌 건국신화가 있다. 비극적인 아이네이스(Aeneas)[20]와의 사랑이야기, 용맹한 전쟁영웅 한니발(Hannibal)[21]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화들이 숨쉬는 카르타지.

해상 무역을 위한 작은 항구에서 시작되었다. 상업발달에 따른 무역규모의 증가와 지정학적 이점을 토대로 하여 기원전 6세기 이전부터 지중해를 아우르는 강성해상국가로 발전한다. 이후 해상무역 상권을 두고 주변국가와의 분쟁이 잦아지면서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게 된다. 결국 3차에 걸친 고대 로마와의 포에니 전쟁에 패배한 이후 많은 카르타고인들은 로마인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거나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로 인해 삶의 터전들은 거의 파괴되었다.

하지만 로마의 점령시대에도 카르타고는 수도의 역할을 지속하였다. 기존 카르타고의 번영 위에 로마의 강성함이 더해지면서 제2의 로마로 불릴 정도로 융성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 이후 다른 외세의 점령기간에도 항구로의 중요한 역할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19) 페니키아인으로 티레(Tyre)의 공주였으나 오빠의 욕망 때문에 카르타지로 망명을 하면서 카르타지를 설립하였다. 엘리사 (Elissa) 공주로 불리기도 한다.

20)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의 영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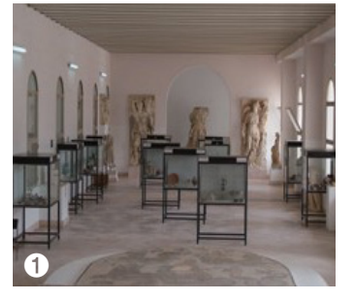
21) 2차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카르타지의 장군.

지금 이 곳에 남아있는 유적과 발견된 유물들은 대부분 카르타고 시대와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다. 두 문명에 있어서 모두 중요한 유적지로 남아 197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그 가치를 입증하였다. 오늘날은 카르타지 주변 유적지를 8곳을 하나로 묶어서 보존 및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명소로 손꼽히는 곳은 단연 국립 카르타지 박물관과 안토니오 목욕탕이다.

먼저 카르타고의 심장부였던 비르사 언덕(Byrsa)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 카르타지 박물관은 1875년 프랑스 고고학자에 의해 설립되었다. 비르사 언덕은 카르타지 문명의 기원에서 시작해 로마시대의 동상, 모자이크 등의 예술품 그리고 그 이후 비잔틴 시절의 유물까지 간직하고 있다. 역사의 집합체와 같은 곳이다. 박물관 내부에서는 삶의 시작이었던 작은 생활도구에서부터 삶의 끝을 기렸던 무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생활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각종 도자기와 예술품의 출토는 당시 주변국과의 문화와 물류 교류 모습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그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받고 있다. 국립 카르타지 박물관은 카르타고의 흥망성쇠 역사와 로마의 화려하고 찬란했던 생활을 알아 보기에 충분한 곳이다.

안토니오 공동 목욕탕은 아프리카에 건설된 최대 규모의 로마 복합 문화 공간이었다. 지난 험난한 역사에 많은 부분이 파손되고 현재는 목욕탕 흔적만이 남아있다. 카르타지에 건설되었던 건물 중 가장 커다란 규모를 자랑한다. 가로길이만 200m가 넘으며 높이 29m 이상의 8층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당시의 건축기술을 뛰어넘어 오늘날과 비교해도 어마어마한 규모다.

카르타고 유적지는 이 두 곳을 사이에 두고 많은 로마시대 유적들이 곳곳에 보물찾기하듯 숨어있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한 때 지중해를 호령하던 찬란한 역사에 답보하는 의미에서 꼭 한 번은 찾아봐야 하는 튀니지 내 최고 명소이다.





❶ 카르타지 박물관 내부 모습 ❷ 거대한 규모의 안토니오 목욕 탕은 로마의 부와 강성함을 나 타내는 듯 하다.

2) 북아프리카와 로마의 만남 - 둑가(Dougga)



튀니지의 북서쪽 베자(Beja)주에 있는 거대한 도시 둑가(Dougga, Thugga)는 기원전 6세기에 발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아름답고 웅장한 도시는 비옥한 토지를 갖춘 내륙의 고지대(해발 571m)에 자리 잡고 있다.

둑가는 로마와 합병 전까지 6세기 동안 누미 디아(Numidia)[22] 왕조의 수도였다. 이후 로마와 비잔틴 시절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나 이슬람 세력이 도래하면서 도시로의 역할은 거의 상실하고 말았다.

북아프리카 내 가장 잘 보존된 로마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더불어 로마 이전 시대인 누미디아 왕조와 베르베르인 그리고 로마 이후의 비잔틴 시대 숨결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드넓은 면적과 오랜 시절을 이어온 명성에 걸맞게 둑가 지역은 오늘날 역사의 산증인으로 남아 있다. 방대한 양의 유적과 유물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누미디아인들의 거주지 흔적이 도시의 낮은 지역에 형성되어 있다. 또한 높은 지대로 올라가면서 정치와 종교 활동을 주관하였던 건축물들이 로마의 신화와 역사, 건축, 문화 등과 함께 어우러져 늠름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 중 단연 눈길이 가는 것은 캐피톨(Capitol)이다. 당시 로마를 지켜주는 세 명의 신[23]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헌정하는 목적으로 로마 제국에 여러 사원들이 건축되었다. 둑가의 캐피톨도 그 중에 하나이다. 서기 166년 완공된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유적에 비해 예외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또 동시대에 건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극장은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당시 5,000명으로 추정되는 둑가의 인구를 감안했을 때 엄청난 규모이다.

이 외에도 장례, 목욕, 종교 등의 생활과 문화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튀니지 내 고대 로마도시 둑가는 1997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았다.

22) 오늘날 튀니지와 알제리 북부 지역에 존재하였던 고대 왕조.

23) 신중의 왕이었던 주피터(Jupiter), 그의 동생이자 아내였던 수호의 신 유노(Juno), 그의 딸이자 지혜의 여신인 미네르바 (Miner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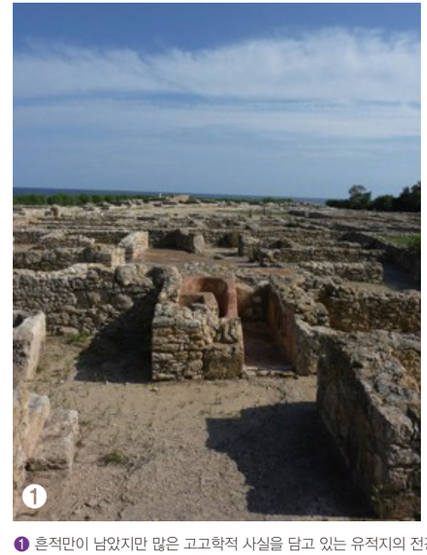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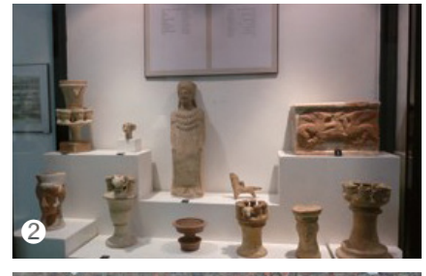




❶ 기원전 2세기에 건축된 누미디아 왕조의 웅장한 묘. ❷,❸ 극장의 내부와 전면 모습.

3) 카르타고인의 삶의 흔적 - 케르쿠안(Kerkuane)







❶ 흔적만이 남았지만 많은 고고학적 사실을 담고 있는 유적지의 전경 ❷ 케르쿠안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
❸ 인신제사를 지낸 카르타고인의 제물이던 영아들을 형상화한 모자이크

튀니지의 북동쪽 캡봉 반도(Cap bon) 끝자락에 위치한 케르쿠안 유적지. 사실 이 곳은 관광지로서 잘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카르타고인에 의해 형성된 도시로 1차 포에니 전쟁에 의해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된 곳이다. 하지만 카르타고 유적지와는 다르게 로마인들에 의한 새로운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원전 3세기 지중해 연안에 살았던 카르타고인의 삶을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다. 당시 항구와 방어 시설로 쓰였던 성벽, 그리고 삶의 터전이 되었던 주거지와 상업이 이루어지던 상점과 거리, 또 회의가 열렸을 법했던 광장까지 많은 것들의 건축물 잔해가 남아있다. 2,000여 년 전 모습을 머릿속에 자아내기 충분하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에 의거하여 1985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선정되었다.

4) 로마제국의 콜로세움 - 엘 젬(El J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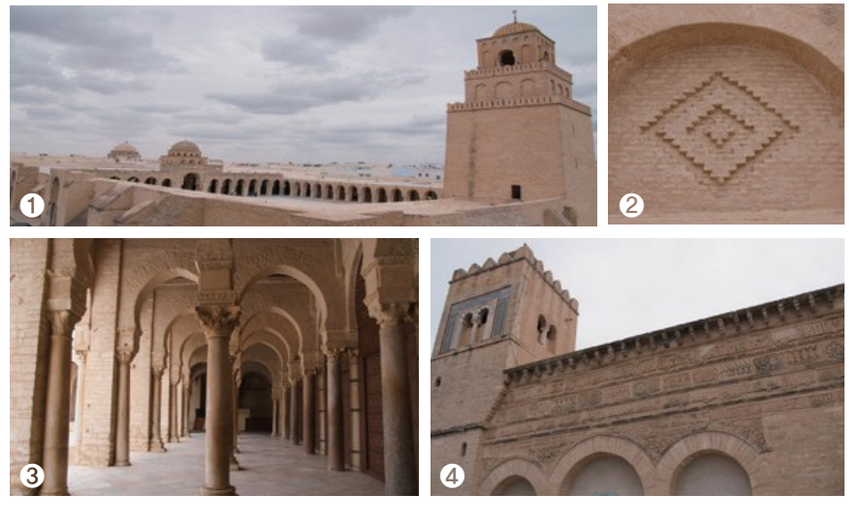
마치 로마에 있는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 여기는 바로 엘 젬이다. 수도인 튀니스에서 남쪽으로 200km 거리에 있는 엘 젬은 세계적인 올리브 생산지로 유명하다. 여기에 있는 로마시대 콜로세움은 60,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가로 138m 세로 114m에 다다르는 크기로 이는 북아프리카 콜로세움 중 최대 규모이며 그 웅장함에 절로 감탄이 나온다.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의 영토가 되어 1세기 중반에 건축이 시작되어 3세기에 완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중해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이르렀던 로마 제국의 강성함을 아직까지 발산하고 있는 듯하다.

5) 북아프리카 이슬람의 진원지 - 카이루앙(Kairouan)

튀니지 중부 내륙에 위치한 도시 카이루앙. 이슬람 4대 성지[24] 중에 하나인 이곳은 서기 647년에 설립되었다. 북아프리카 이슬람의 진원지가 된 최초의 이슬람 도시였다. 9세기 아그라비드(Aghlabid) 왕조에 의해 종교적,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이슬람 성서인 코란(Koran)과 농업, 제조업과 법률 등의 학습이 이루어지 는 교육적 측면까지 포괄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후 왕조의 통합과 이슬람의 동쪽 확장정책으로 인해 수도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면서 쇠퇴하였다. 아직도 마그레브(Maghreb)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무슬림들에겐 최고의 성지로 남아있다.

24) 이슬람4대성지 : 사우디아라비아의메카(Mecca)와메디나(Medina),튀니지카이루앙(Kairouan),이스라엘의예루살렘(Jerusalem).



❶ 북아프리카 최고의 모스크인 시디 우크바 모스크(Sidi Uqba Mosque) ❷ 9세기에 완공되었으며, 3가지 양식의 414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다. ❸ 모스크 벽의 정사각형의 장식은 이슬람 4대 성지를 나타낸다. ❹ 고대 아라비아 서체인 쿠픽체(Kufic script)로 장식된 3개의 문 모스크

나. 여기는 꼭! 반드시 방문할 곳(Must-visit place)

1)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 튀니스 메디나(Tunis Medina)

12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동안 튀니스는 이슬람 세계에서 제일 크고 부유한 도시였다. 튀니지 북부의 상업과 경제는 물론 튀니지 전체의 행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도시 로 번성하였다.

이러한 튀니스의 모든 흔적을 한 몸에 간직하고 있는 곳이 바로 메디나이다. 메디나에서는 성곽, 이슬람 예배당인 모스크, 이슬람 성인들의 묘지, 이슬람 교육기관 등을 비롯하여 700점에 가까운 유물이 발견되었다. 현재 튀니스 메디나는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오늘날의 메디나는 거주지의 의미보다는 전통 물품에서 현대 생필품까지 거래가 오고가는 상업지구로의 변모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틈새 곳곳에서 삶의 터전이었던 옛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메디나 중심에 위치한 지투나 모스크(Zitouna Mosque)이다. 9세기 설립된 이 이슬람 예배당의 이름은 올리브 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올리브 나무 밑에서 코란을 가르쳤던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또 메디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과 그에 칠해진 색을 통해서 옛 튀니지인의

생각과 삶을 엿볼 수 있다. 하나의 커다란 아치형 문 또는 두 개의 직사각형 문은 당시 하프시드(Hafsid)왕조의 건축 양식을 간직하고 있다. 커다란 문 밑에 작은 문이 있는 스타일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동작을 유도함으로써 이슬람 복종을 요구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한다. 또 문에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는 색도 제각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노란색은 신에게 사랑받는 색이였으며 녹색은 낙원을 의미한다. 또 당시 왕조를 나타내던 흰색과 빨간색 문 역시 메디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매력있는튀니지의문들. 사각형의문은아랍시대의전형적인문의스타일이며,상단이 아치형인 문들은 베르베르인들의 건축스타일이다.

2) 튀니지안 블루 - 시디 부 사이드(Sidi bou Said)

수도 튀니지에서 20km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마을 시디 부 사이드(Sidi bou Said)는 그리스 산토리니 섬을 연상케 하는 곳이다. 하얀색 벽에 파란 창문을 가진 건물들 사이로 비추는 따사로운 햇살이 아름다운 지중해 정경과 어우러진다. 이곳은 튀니지 내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 마을 이름인 시디 부 사이드는 서부 아랍국가에서 성자나 전도사 등 권위 있는 남성을 부르는 존칭인 시디(sidi)와 마을을 의미하는 부(Bou), 12세기 마을에 거주하였던 유명한 이슬람 종교인인 아부 사이드(Abou Said)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명칭이다. 그의 시신이 이곳에 안치되어 있으며 그를 기원하는 이슬람 사원 역시 건설되어 있다.

이 작은 마을은 순백의 하얀 건물 벽에 파란색 창이 하늘, 바다와 잘 어우러져 한 층 멋을 더하고 있는데, 이 색채는 프랑스 화가이자 음악가였던 루돌프 데를랑게르(Rodolpe d'Erlanger)에 의해 1920년 즈음에 시작된 것이다. 원래 이슬람에서 파란색 은 '재앙, 고통' 등을 의미하여 거의 사용되지 않던 색이었다. 그러나 그의 노력으로 인해 '튀니지안 블루' 또는 '시디 부 사이드 블루'라고 불릴 정도로 이곳의 대표적인 색이 되었다.

시디 부 사이드는 예술가의 도시로도 유명하다. 스위스 화가인 파울 쿨레(Paul Klee)를 비롯하여 이슬람 신자였던 프랑스 풍자만화가 귀스타브 앙리 조소(Gustave-Henri Jossot)등이 활동했던 곳이기도 하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Andre Gide)의 대표저서인 '좁은문'의 영감을 준 곳도 바로 이곳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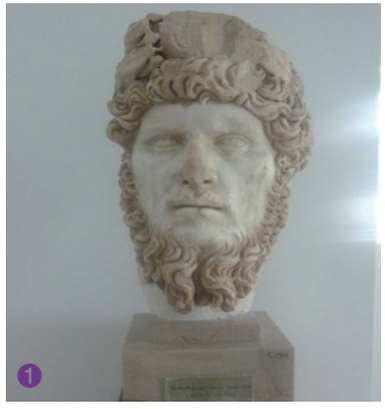
❶ 카페에서 내려단 본 시디 부 사이드의 전경 ❷ 시디 부 사이드의 상징인 하얀색 벽과 파란 창

3) 지중해 남부 최고의 박물관 - 바르도 박물관(Bardo Museum)

수도 튀니스에 있는 바르도 박물관은 선사시대의 공예품부터 오늘날의 보석까지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지중해 남부 연안 최고의 박물관이자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이어 아프리카 내 제일 중요한 박물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1888년 오스만 튀르크 지배 시절 주변의 지질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귀하고 아름다운 유물들의 전시를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그 당시 군주의 이름을 따서 '알라위(Alaoui) 박물관'이라 불렸으나 독립 이후 지금의 바르도 박물관으로 개명되었다.

박물관은 크게 몇 가지 테마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시대별 건축 양식을 재현해 놓은 건축 전시관과 고대 카르타고인들의 생활을 알아볼 수 있는 유물전시관, 문명에 따른 조각과 모자이크 등의 예술 작품 전시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 튀니지 영토 내에 번성하였던 카르타고, 둑가, 유티카(Utica)와 같은 고대 국가들의 고유한 유물부터 많은 침략의 역사와 함께 전파된 유물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튀니지의 2천년 역사를 한 곳에서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❶ 로마 역사상 최초의 공동 황제였던 루키우스 베루스(Lucius Verus) 조각 ❷ 율리시스의 신화를 배경으로 한 모자이크.
❸ 세례의식에사용되던로마시대유물.

2. 파란 하늘 푸른 바다

가. 지중해 연안

1) 튀니지 최고의 휴양지 - 수스 (Sousse)





❶ 메디나 입구의 히밧 ❷,❸ 고급호텔들이 즐비한 수스. 요트와 해적선, 해양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다.

튀니지 중동부에 위치한 수스는 유구한 역사와 함께 튀니지 내 최고의 휴양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며 동시에 인구 60만에 달하는 튀니지 4번째 도시이다. 이슬람 초기에 형성되어 전형적인 아랍도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당시 주요 건축물과 생활구역이 그대로 남아있는 메디나 지역은 1988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위상을 높였다.

외부의 침입에 방어하기 위해 높게 쌓인 건물들을 지칭하는 카스바(Kasbar)와 이슬람 수도장 및 외세 침입 관측 탑으로 사용했던 리바트(Ribat), 방어건물들 안에 형성되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메디나는 현대 튀니지에서 고대 아랍인의 삶의 방식과 정취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수스는 이런 역사적 매력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휴양에 있어서도 단연 최 고임을 자부한다. 현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스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다. 매년 12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는다. 해안에서는 각종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요트를 타고 지중해를 만끽할 수 있다. 해안을 따라서 고급 숙박시설과 음식점은 물론이며 카지노와 클럽 등의 시설 또한 즐비해 있다.

2) 해변과 축제의 도시 - 하마멧(Hammamet)

캡봉 반도의 남부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 튀니스에서 한 시간 남짓한 거리에 있는 하마멧은 튀니지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유명한 관광단지이다. 에메랄드빛 지중해를 품에 안고 있어서 해수욕과 해양스포츠로 유명하다. 볼거리로는 시내에 있는 메디나를 중심으로 해안선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있는 카스바와 메디나 북쪽에 마르띠흐 광장(Martyr's Square)등이 있다.

지역으로 살펴보면 도시 전통이 살아있는 북부 지역과 독립 이후 전문적인 관광단지로 형성된 야스민 하마멧(Yasmine hammamet)으로 나뉜다. 야스민 하마멧의 경우 고급호텔들을 기반으로 테마파크인 카르타지 랜드(Carthage Land), 동물원인 프리기아(Friguia) 등이 있다. 또한 국제 하마멧 축제가 열리는 문화 센터 등 많은 휴양시설이 즐비한 곳으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마멧의 고급호텔 내부 전경과 해변의 모습

3) 해변이 도대체 몇 개야? - 캡봉 반도(Cap bon)

튀니지 북동쪽에 위치한 캡봉 반도는 수도 튀니스에서도 비교적 근거리에 있어 가볍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삼면이 바다인 반도의 해안선을 따라 크고 작은 해변들이 즐비하다. 각 해변마다 제각각의 멋과 특색을 지니고 있어 찾는 이로 하여금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으로 기쁨과 환희에 젖어들게 만든다. 이 작은 반도에는 페니키아 유적지인 케르쿠안(Kerkuane), 온천수가 솟아나는 코르부스(Korbous), 채석작업으로 인해 생긴 인공 동굴과 매 축제로 유명한 엘 하우리아(El-Houria), 아름다운 성벽도시켈리비아(Kelibia), 하얀 백사장이 넓게 펼쳐진 코르바(Korba), 그리고 도자기의 도시 나불(Nabeul)까지 온갖 매력이 밀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❶ 온천수가 샘솟는 코르부스 ❷ 엘 하우리아의 인공동굴

4) 바다와 산을 동시에 - 타바르카 (Tabarka)

튀니지 북서쪽 끝자락 알제리와의 국경지대에 있는 작은 도시 타바르카는 인구가 2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도시 이지만 동부해안의 관광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북부 해안의 유일한 해안도시이다. 산호가 유명한 이곳은 매년 산호사진전이 열린다. 바다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군을 보기 위한 스쿠버 다이버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또 매년 초여름에 열리는 재즈축제 역시 도시의 매력을 더하고 있다. 타바르카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남은 누메디안 도시였으며 고대부터 대리석 채석과 산호관련 무역이 이루어진 곳이다. 다른 유적지와는 다르게 이슬람 유물보다는 고대 로마시절 교회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교회 건물과 가톨릭 성벽의 흔적, 모자이크로 장식된 가톨릭 신자들의 공동묘지 등이 남아 있다. 또 오스만 튀르크 지배시절 유럽과 산호 무역을 하였던 제노아인(Genoese)의 건물이 몇 몇 남아있다. 특히 해변 언덕 정점에 그들이 지어놓은 제노아즈 성(Genoese castle)은 타바르카를 상징하는 관광 포인트가 되었다.




❶ 언덕 끝에 있는 제노아즈 성 ❷ 암석이 아름다운 타바르카

5) 환상의 섬 - 제르바(Djerba)

튀니지의 남동부 가베스 만(Gulf of Gabes)에 위치한 제르바는 북아프리카 최대의 섬으로 완연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해안과 드라마 같은 일출로 외국 관광객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곳이다. 섬의 중심이 되는 북부 지역에는 많은 고급 호텔들이 즐비해 있으며 다른 휴양지와 마찬가지로 각종 부대시설들이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침략과 지배의 반복이었던 튀니지 역사에서 제르바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많은 유물은 물론 종교, 인종 등이 이를 알려주고 있다. 현재에도 제르바는 튀니지 내에서 베르베르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며 아직 베르베르어가 일부 통용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유대교 예배당이 존재한다. 바로 제르바에 있는 엘그히바 유대교 예배당(El-Ghriba synagogue)이다. 이 곳은 2,000년 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8세기경 이슬람의 도래로 베르베르인과 유대교가 튀니지 내륙에서 점점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곳 제르바까지 내몰리게 된 역사를 짐작케 한다.

나. 사막, 내륙 지역

1) 사하라 사막으로의 관문 - 토주르와 케빌리(Tozeur & Kebili)

거친 모래 바람이 몰아치는 사하라 사막 속에 드넓게 펼쳐진 셀 수 없이 많은 야자수와 오아시스가 있는 마치 꿈만 같은 광경이 펼쳐지는 이곳은 바로 사하라 사막의 필수 관문인 토주르와 케빌리이다.

토주르는 튀니지 중서부 알제리 국경 근처의 오아시스 지역이다. 고대 로마시절부터 유명한 수원지 역할을 했던 이곳은 오늘날 많은 관광객을 유혹하는 관광지역으로 거듭났다. 사하라 사막 본연의 매력에 더해진 시내 중심지 메디나의 풍요로운 정경, 잘 갖추어진 부대시설 등 최고의 사막여행지임을 자처하는 곳이다. 버스, 기차, 르와지는 물론 국제공항까지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다.

다음으로 토주르와 소금호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케빌리. 북아프리카에서 제일 오래 된 오아시스 지역으로 튀니지에 인류가 존재했다는 가장 오래된 증거가 발견된 곳이다. 이는 약 이십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사막 여행은 어느 때나 가능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시기로는 가을과 겨울을 꼽을 수 있다. 특히 11~12월은 선선한 날씨와 제철 맞은 대추야자(Date), 여름에 비해 저렴한 숙박 요금, 국제 사하라 사막 축제가 열리는 기간으로 최적의 시기이다.







❶ 사막 속 오아시스와 야자수가 아름다운 토주르 ❷ 케빌리의 사막 축제 모습. ❸ 베르베르인의전통건축물이신비로운타타윈.

낙타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막의 고운모래와 거친 바람을 만끽하는 것이 사막에서의 필수 코스다. 또한 사막에서 바라보는 지평선 너머로의 일몰과 깜깜한 밤을 비추는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쏟아내는 아름다운 광경을 체험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사막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묘미이다.

2) 어디서 본 것 같은 데? 영화 촬영지 타타윈(Tataouine)

튀니지 남부에 위치한 타타윈. 토즈르가 서부 아프리카로 가는 관문과 같은 역할 이였다면 이 곳 타타윈은 동부 아프리카 리비아와 수단으로 향하는 관문이었다.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많은 베르베르인 거주하고 있으며, 고온의 열기를 피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땅을 파고 가옥을 만들어 살던 베르베르인의 지하 거주지와 곡물창고로 이용하였던 아치형의 건물 크수르(Ksour)가 유명한 이곳은 바로 타타윈이다.

헐리우드 영화인 스타워즈와 엑스파일 등의 촬영지로 각광받으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오늘날 많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PART II. 튀니지 둘러보기

튀니지 둘러보기

1. 단원 파견 현황

튀니지에는 2006년도부터 총 139명의 봉사단원이 파견되어 지역개발 및 문화교류에 힘써 왔다. 지난 2015년에 봉사단 파견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으나, 2018년 초부터 튀니지 측의 지속적인 봉사단 파견재개 요청과 함께 치안이 비교적 안정됨에 따라 봉사단 재파견이 결정되었다. 2016년도에는 14명의 단원이 한국어, 컴퓨터교육, 특수교육, 요리, 청소년 개발, 태권도, 수영교육 등 분야에 활동하였으며,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9년도에는 한국어 교육 분야, 태권도, 요리 부문의 봉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가. 모집 분야 현황

지역	기관명	직종
Hammamet	하마멧 관광전문학교	공공행정(관광)
Sfax	스팍스 청소년회관	교육(한국어교육)
Sidi Alouane	시디알루안 청소년회관	교육(체육교육/태권도)
Monastir	모나스티르 정보수학대학	기술환경에너지(전자)
Monastir	모나스티르 청소년회관	교육(한국어교육)
Monastir	모나스티르 양로시설	공공행정(사회복지)
Sousse	수스 관광 전문학교	교육(요리)
Ben Arous	벤아루스 다운신드롬 특수교육기관	교육(특수교육)
Beja	베자 응용언어정보과학대학	교육(한국어교육)
Bizerte	비제르트 청소년회관	교육(음악교육)
Tunis	튀니스 과학도시	기술환경에너지(전자)
Nabeul	나불 기술고등교육기관	교육(체육교육/태권도)
Manouba	마누바 대학교(인문대학)	교육(한국어교육)
Manouba	마누바 특수교육기관	교육(특수교육)
Tunis	튀니지 국립대학교	교육(사서)

※ 2019년도 봉사단 수요조사 15개 기관 파견 희망직종 조사

2. 단원 활동 미리보기

현재 활동 중인 선배단원의 활동사례를 통해 앞으로 나의 단원 활동을 미리 예측해 보도록 하자. 분야가 다르다 하더라도 봉사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단원의 역할이나 활동을 알아보면서 나만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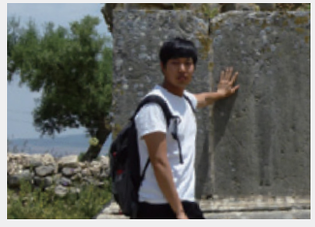
가. 사회복지 분야

활동기관명	- 청소년 관찰 사회복지시설 (Centre Social d'observation des Enfants)
활동기관 개요	- 경미한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을 한 달간 보호한다. 청소년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법정에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기간 동안 입소청소년에게 숙식제공 및 교육, 기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차후에 입소 청소년은 법정 결과에 따라 원가정 복귀 또는 교정시설로 이동을 하게 된다. - 기관 구성 : 직원 총 27명
봉사단원 근무부서	- 부서명 : 청소년보호 및 관찰부서 - 직원 수: 13명 (슈퍼바이저 2명, 사회복지사 11명)
부서 기능	- 입소 청소년 관찰 및 관리 - 입소 청소년교육 - 입소 청소년 개별상담 - 입소 청소년 부모 상담
봉사단원 업무활동	-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 (미술활동 프로그램, 여가활동지원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주요 활동대상 인구	- 13~18세 남자 청소년 - 경미한 범죄를 일으킨 입소 청소년
세부 활동 내용 및 지속 계획	- 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놀이문화 수립 - 기관 직원들에게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동기부여 및 각인 - 현장 사업을 통해 장난감 도서관 설립함으로써 놀이문화의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

나. 체육교육 분야

활동기관명	- 장애인체육협회 (Fédération Tunisienne des Sports pourHandicapés)
활동기관 개요	- 업무: ・ 장애인 국제대회에서의 메달 획득 ・ 국가의 홍보 및 국위 선양 ・ 장애 체육의 홍보 및 장애체육의 발전 - 기관구성 : ・ 협회 (대표를 포함한 직원 약 20여명) ・ 기관 (코치3명, 마사지사 1명, 관리자 1명)
봉사단원 근무부서	- 부서명: La sall de sports dans Cite Olympique - 직원수: 5명 (코치 3명, 마사지사 1명, 건물 관리자 1명)
부서 기능	- 선수들의 기량향상을 위한 운동 ・ 기초 체력 및 근력 향상 ・ 국제대회의 준비
봉사단원 업무활동	- 장애 선수들의 근 기능 발달 프로그램 진행 - 장애 선수들의 자세 교정 및 기록 측정 - 근 기능 스트레칭 및 마사지
주요 활동대상 인구	- 국가 대표 장애인 선수 30여 명
세부 활동 내용 및 지속 계획	- 근 기능 발달 도모, 운동 기술 향상 등으로 인한 운동 능력 증대 - 국제 시합에서의 성과 도모

임재근



안녕하세요. 코이카 53기 임재근 단원입니다. 봉사단원으로서 단원의 임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임무 수행에 있어서 파견국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수행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파견초기부터 조금씩 정보를 수집하였 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록으로 남길 수 있 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내용이 많지만, 튀니지 파견을 준비하시는 후배 단원님들께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류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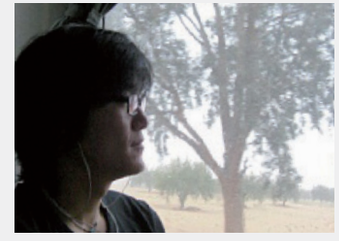
아슬레마السلامة !! 벌써 튀니지에서 생활한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튀니지에 대한 이런 저런 정보를 정리하다 보니 오랜만에 처음 파견될 때의 설렘이 다시금 생각났습니다. 어떤 나라일지, 지금 생각해보면 막연히 TV에서 비춰지는 아프리카에 대한 생각만 하고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막상 튀니지에 왔을 때 생각과 다른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새롭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튀니지는 저에게 하루하루 새롭습니다. 지난 2년 간 눈에 보이는 변화들도 있었고, 스스로 이뤄낸 아랍권 혁명의 시초가 되었다는 자부심, 그리고 또 다시 가야할 길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들, 모두가 새로운 튀니지를 느끼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튀니지가 이제는 고향처럼 느껴지는 지금, 저희가 모아 본 정보들이 튀니지로 한 발 나아갈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اركش

박예경



53기 컴퓨터 단원으로 2010년 1월 4일 튀니지에 첫발을 디딘 박예경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청소년 회관(방과 후 클럽 활동을 하는 곳)에서 아이들에게 기초 컴퓨터 상식, MS-Office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곳 생활이 익숙해지고, 현지 친구들과 돈독하게 지내고 있는데 시간은 어느 덧 정리하고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별 안내서를 쓰면서 지난 1년 6개월을 돌이켜보았던 가치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고아나 가난한자, 도움을 청하는 자 모두가 형제이니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코란의 구절처럼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마음가짐을 다시 잡아봅니다.

남기모



5체육교육 분야로 파견되어 튀니지 장애인 국가대표팀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남기모 단원입니다. 이제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별 안내서의 감수를 맡게 되어 그동안의 봉사 활동을 되돌아 볼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였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선배 단원들조차도 미처 몰랐던 중요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가득 담긴 이 국별 안내서를 발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경아



사회복지 분야의 양경아 단원입니다. 저는 현재 청소년 관찰 사회복지시설에서 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튀니지로 파견이 결정되어진 후 튀니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자 책과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모아봤으나 많이 알려지지 않은 튀니지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미비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하고 나서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았던 정보들과 현지사정을 잘 몰라 여러 불편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튀니지로 파견이 되는 후배 단원 들에게는 이런 어려움 없이 현지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국별 안내서가 생겨 즐겁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튀니지 사무소 업데이트

교육자료 월드프렌즈 글교 2019-12-366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 튀니지편

발 행	2019년 08월 30일 (2판 1쇄 : 튀니지)
발 행 처	월드프렌즈교육원
주 소	본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교육원)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다래골길 53
전 화	033) 834-5811
팩 스	033) 834-5840
홈페이지	http://kov.koica.go.kr
디자인/인쇄	(주)두루행복한세상

[무단복제를 금함/비매품]